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20

Osan Culture Center
1994-2013

오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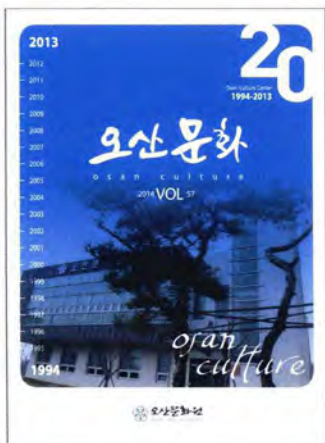
o s a n c u l t u r e

2014 VOL.57

osan
culture



오산문화원
OSAN CULTURE CENTER



오산 그리고 오산천

참 많이도 변했다. 오산엔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길이 넓게 뚫리고, 오산천은 예전에 물이 가득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물길이 줄어들고 그 주변 산책로가 생겨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여유로운 휴식 등 여러 가지로 즐기고 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해 나갈 오산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촬영장소_ 에코리움 전망대, 사진가 정영욱

오산 문화

2014. VOL.57

osan culture



04	권두언 어려움을 헤치며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 임명재
06	격려사 오산문화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조석규, 이기룡, 오근택
08	축사 오산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 곽상욱 오산문화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안민석
10	오산문화원 연혁 20년사(1994-2013) / 남경식
20	죽미령 쉼터 시감상 / 서정택 그림 / 김수철
26	향토사이아기 아팔과 오산 / 한민규
37	지명유래 오산(烏山)의 지명 유래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38	문학강좌 수필을 찾습니다 / 박장원
42	사진강좌 오산천의 사람과 풍경 / 정영욱
48	2014오산시대보름한마당 2014년 오산시정월대보름 큰잔치 / 글_유종대, 사진_정영욱
52	문화단체 순례 대한민국의 중심, 이벤트 최강!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 / 배명숙
54	대학가 소식 오산대학교, 제11회 국토순례대행진(지리산둘레길) 출정 / 이주연
56	건강칼럼 한약의 새로운 변신 / 공병희
58	차 한잔의 여유 타자기 이야기 / 유근형 내 나이가 어때서 / 공란식
63	오산 문화 소식 오산시 상반기 문화예술, 자체 점검의 시간과 성숙의 장으로 활용되었나? / 이숙영
76	시민광장 오산아줌마의 히말라야 탐험기 / 송경은 세교에서 피어나는 행복한 연기의 향을 느끼면서 / 최은숙 취새끼 잡는 날 / 송 희 '오산',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안신영
88	오산문화원가족

어려움을 헤치며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독산성에서 해돋이를 맞는 신년해맞이행사를 필두로 한해를 시작하며, 2월엔 제9회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축제한마당을 개최하여 2만여 오산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도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은 모두 오산시민들과 오산문화원 가족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이룬 결과여서 더욱 뜻 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학여행 중에 세월호 참사를 당한 어린 학생들의 운명에 우리는 분노와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허탈함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울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비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도 치러지며, 더욱 무거운 사회 분위기 속에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산문화원은 금년에 개원 2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경륜 있는 문화단체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초대 조석구 원장을 필두로 이기룡, 오근택 원장을 맞으며 변화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산문화원은 다변화된 변화를 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산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그동안 묻혀있어, 잊었던 우리 삶의 흔적들을 찾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오산에 관한 오산의 문헌적 기록을 위한 오산향토문화연구소 논문집, 그동안 개발이 낙후되며 그리하여 옛 모습

“

오산문화원은 금년에
개원 2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경륜 있는
문화단체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

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중앙동 주민의 삶의 기록을 사진과 역사와 현재 삶을 찍고 쓰며 보존하려고 합니다. 오산의 시조인 비둘기를 오산의 지명 정체성에 맞게 까마귀로 바꾸는 작업도 하려고 합니다. 오산의 3.1운동에 관한 역사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1차 사업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며 꼼꼼히 추진하려 합니다. 오산 3.1운동 첫 발상지인 1919년 오산장(우시장)자리와 30년간 오산에 두었던 화성군청 자리인 현 롯데마트 자리와 현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첫 번째 오산시청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작업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오산이 보유했던 이용우로 대표되는 세습무 재인들의 경기도당굿과 경기재인청에 대한 학술 토론회와 복원도 해보려 합니다.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와 손잡고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독산성 진남루 복원에 대해서도 힘이 되는대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적게 내려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곡엔 물이 마르고, 저수지 바닥은 하늘을 향해 맨 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여건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시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문화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오산문화원장 임명재

격려의 말

“

오산문화원이
오산의 전통 보존과
오산시의 새로운 희망과 영광을 함께 하는
앞선 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산이 시로 승격된 해가 1989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5년 뒤 문화원 미설립 지역이었던 오산시는 1993년부터 설립 준비를 하고, 오산문화원 설립 발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초대 오산문화원장에 조석구를 선임하며 발족한 것이 1994년이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오산문화원이 오산문화 창달이라는 큰 뜻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초창기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시 당국으로부터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장인 저와 회원 모두는 열정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설립 후 오산문화원의 첫 사업이 7월 5일 제44주년 유엔군초전기념식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개최였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시민노래자랑, 초대작가전, 시화전, 서예전, 백일장, 제1회오산시민환경문화한마당큰잔치, 환경설치전, 마당극, 노래자랑, 사진전, 재활용품품전, 우리밀빈대떡 시식회, 『오산문화』 창간호 발행, 빗재가마도예전 개최 등이었습니다. 문화 예술 모든 면을 포함하는 사업들을 치뤘습니다. 이 오산문화원 사업들을 이기룡 제3대 오산문화원장, 오근택 제4대 오산문화원장께서 지키고, 키우며, 발전시키어 더욱 성숙한 오산문화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의 일부를 오산문화재단, 오산예총 등에 이전하여 세밀한 전문화 과정을 이뤄내고, 오산문화원도 본래 사업으로 전문화 과정을 감당하고 개척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구



이기룡



오근택

현재 오산은 21만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로 성장하여, 경기 남부 문화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바로 위대한 오산시민과 오산문화원의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이 밑받침 된 것으로 이것은 오산문화원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산문화원이 오산의 전통 보존과 오산시의 새로운 희망과 영광을 함께 하는 앞선 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산문화원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명재 오산문화원장님과 회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댁내 모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초대, 제2대 오산문화원장 **조석구**

제3대 오산문화원장 **이기룡**

제4대 오산문화원장 **오근택**

오산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힘써온 오산문화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문화원 가족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산문화원은 그간 초대 원장이신 조석구 원장님을 비롯하여 제5대 임명재 원장님까지 역대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연구와 고유문화 전승·선양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오산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이 크심에 개원 20주년을 즈음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독산성 문화제를 비롯하여 신년해맞이행사,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등 굵직한 시민참여형 지역전통문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 부설기관인 오산향토문화연구소를 발족하고 청소년 전통악기교실, 테마가 있는 인문학강좌 개설, 오산역사문화 바로알기교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어르신들의 실버합창단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는 특별한 문화단체로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처럼, 날로 다변하는 21세기 문화 정보화시대에 오산문화원은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돕고, 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문화발원지로서 제2의 혁신, 도약기로 발돋움해, 시대가 요구하는 오산시의 전통문화 보존에 보다 더욱 충실하고자 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나아가는 문화원이 있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아울러, 우리 오산시가 한류문화의 거점도시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산문화원 가족여러분 사랑합니다.

2014년 6월

오산시장 **곽상욱**

오산문화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먼저 향토 문화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여러
지역문화행사에 앞장서고 있는 오산문화의
힘, 오산문화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평소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해 힘써주
고 계신 오산시와 오산문화원에 진심어린 감
사 인사를 전하며, 오산문화원 임명재 원장
님을 비롯해 이번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분들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
니다.

오산문화원은 2010년 제1회 오산 독산성문
화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독산성을 보존하
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제시
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고, 임진왜란 때는 권
율의 세마대첩으로 왜군을 물리쳤으며, 개혁
군주 정조가 사도세자를 기리며 머물렀던 충
효사상이 깃든 독산성은 오산을 넘어 대한민
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오산문화원
은 이러한 독산성의 가치를 알아보고 독산성
복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방선거를 마친 직후 독산성 복원
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독산성에 초청하였습니
다. 이 방문을 통해 문화재청장님께 독산성의
가치에 대해 알리고 함께 독산성 복원의 밑그
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둔 간담회였다고 생각합니
다.

독산성 복원 사업에 있어 오산문화원의 역
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
와 오산시 그리고 오산문화원이 하나 되어 우
리의 꿈을 다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소
망합니다.

앞으로도 오산문화원이 전통문화예술의 발
전적 계승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선도적 역할
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산문화원 창립 20주년’을 축
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국회의원 안민석

1994-2013

오산문화원 20년사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남경식

오산문화원은 2014년 현재,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오산의 문화, 예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20여년이 지나면서 예술은 오산예총이 설립되면서 오산예총에 그 역할을 넘겼으며, 문화 부문도 오산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그 역할을 세밀하게 분리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오산문화재단과 오산예총이 예술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예술 외적인 부분에서도 언젠가는 분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산문화원이 그동안 향토사를 포함한 전통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굴하며, 보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해갈 것이다.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오산문화원의 활동사항을 역대 원장과 함께 간략한 연표로 알아보도록 한다.

연혁

1993년 3월 31일 시·군 문화예술담당 계장회의에서 지방문화원 설립확대 방안 지침을 시달. 경기도내 미 설립 시·군인 오산, 미금,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응진 등. 5월 20일 문화원 설립 추진계획 수립. 7월 20일 오산문화원(가칭) 구성을 위한 발기위원 추천시달. 각 동 사무소 및 유관기관. 10월 7일 (가칭)오산문화원 발기위원회 총회 개최. 발기인 24명 중 22명 참석. 조석구 발기위원장 선출. 10월 18일 발기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조석구 발기위원장(남촌동), 문석균·한두석(중앙동), 유무현(대원동), 임철규(신장동), 유완재(세마동), 유을노(초평동), 10월 28일 (가칭) 오산문화원회원 추천. 1994년 1월 5일 오산문화원 발기인 운영위원회 개최. 창립총회 일정 마련하여 회원 89명 확정. 1월27일 오산문화원 창립총회. 임원선출 오산문화원장에 조석구, 부원장 문석균, 감사 김강용·차경환, 이사 공대식 외 15명. 정관확정. 사업계획 승인. 5월11일 사단법인

오산문화원 법인설립 허가 필. 문체부 제57호,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에 의거, 6월16일 오산문화원 개원식. 9월11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필. 문체부 제194호(1994년 1월 7일 지방문화원 진흥법 공포, 1994년7월 시행에 따라 재설립 신고)

기구와 임원

2014년 6월 현재 오산문화원의 조직 구성을 알아본다.

● 오산문화원

고문	조석구, 이기룡, 오근택
원장	임명재
부원장	유원복, 이종석
감사	윤병화, 유장식
자문위원	곽상욱, 서범석, 채수일
이사	공영란, 구명자, 권영대, 김규두, 김명숙, 김영진, 김영희, 김재명, 김정수, 남영도, 류충권, 류치양, 모용상, 박희주, 배명숙, 원종윤, 이동렬, 이봉준, 장복실, 주복덕, 최형식, 한규철, 한금복, 황선명
운영위원	공형식, 공란식, 김정한, 노해순, 목진옥, 민정근, 박경진, 박지순, 성정은, 손선아, 원유배, 이기택, 이운진, 이재구, 이정숙, 이창규, 이필영, 장재홍, 장 현, 정지인, 조광준, 최서희, 최창순, 최호영, 한귀동, 한민규, 홍학기
회원	강민정, 공민주, 김선영, 김영민, 김정수, 김태현, 김해룡, 김혁태, 나옥란, 민순애, 박영자, 박정하, 백미옥, 변영일, 서유순, 송경은, 송석일, 신경희, 오봉진, 유호순, 윤영미, 이광세, 이동우, 이명녀, 이보경, 이선자, 이원숙, 이정혜, 이종철, 이태은, 이현영, 장명희, 장영환, 정연모, 정원순, 정희순, 지은정, 진연덕, 최병문, 최순희, 최영미, 최영숙
사무국	사무국장 유종대, 행정실장 추은실
전문위원	남경식

●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남경식

연구위원 강경구, 김용국, 김준혁, 배명숙, 오근택, 유종대, 이종석, 이희석, 임종삼, 정해득, 한민규

문화사업현황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향토사례집 발행, 독산성문화제 등 축제, 문화기행, 전통문화 교육을 통한 체험과 제작, 『오산문화』 발간을 비롯한 서적 발간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일궈내고 있다. 남아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더한다.

1993년

조석구(趙石九, 1940 ~)

오산 출생. 초대, 2대 오산문화원장. 시인, 문학평론가, 문학박사.

2002년

재임기간 : 1993년7월20일~2002년9월4일 / 사무국장 한민규, 박병철.

1994

07월 5일

제44주년 유엔군 초전기념식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 개최

07월15일

충·효·도의 선양교육 실시(관내 중·고등학교)

08월 22일

경기도 소인국 경연대회 참가

09월 06일~12월 30일

생활문화교실 운영(문학, 미술, 사진, 주부60명)

09월 12일~15일

오산시민의날기념경축문화행사, 시민노래자랑, 초대작 가전, 시화전, 서예전, 백일장

10월 21일~22일

제1회오산시민환경문화한마당큰잔치, 환경설치전, 마당극, 노래자랑, 사진전, 재활용품전, 우리밀빈대떡 시식회, 오산천환경오염지도 전시, 백일장, 그림그리기, 협동화그리기

12월 27일~30일

빛재가마도예전 개최, 도예가 김용문 작품전

12월 31일

『오산문화』창간호 발행

1995

03월 30일

봉산탈출 한마당

04월~06월

제2기 생활문화교실 운영

05월 03일 ~ 08일	8인의 회화전
06월 03일	제2회 환경문화 한마당 큰 잔치
06월 03일 ~ 05일	시화전 및 시 낭송회 등
07월 05일	제45주년 유엔군 초전 기념식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
07월	『오산문화』제2호 발행
09월 26일 ~ 30일	향토작가 21인전
12월 01일	해방 50주년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12월 05일 ~ 15일	충·효·도의 선양교육
12월 19일	송년 민속한마당

1996

01월 04일	신년인사회
04월	미스경기 선발대회 참가
04월 ~ 07월	상반기 생활문화교실 운영(문학, 미술, 사진교실 운영, 합동전시회 개최)
05월	『오산문화』제3호 발행
05월 10일 ~ 15일	향토작가전
06월 14일	제3회 환경문화한마당 큰 잔치, 퍼포먼스, 노래자랑, 줄넘기, 제기차기, 우리농산물 애용 장터, 무공해 비누 만들기, 수질오염 측정시범, 우리밀 시식 및 재활용품전 등
09월 ~ 11월	하반기 생활문화교실
10월 29일	제1회 독산성 문화예술제 · 독산성고유제, 청소년 향토문화제 순례, 청소년가요제, 시민 위안의 밤, 백일장, 그림그리기 등
11월 05일 ~ 07일	향토 서예전
11월 16일	제1회 청소년연극제
12월 06일	송년한마당큰잔치, 청소년을 위한 초청연극「당신을 보았습니다」공연
12월 31일	향토사료집 발간 『오산의 뿌리를 찾아서』

이 후 1997년에는 향토사료집 『오산향토사료집』 발간 및 전년도에서 치르던 고정 행사를 치렀다.

1998년~2002년 9월4일 고정행사 및 향토사료집 『독산성(1998, 1999, 2000, 2001, 2002)』

『오산문화』 1~34호 발간.

2002년

2006년

이기룡(李起龍, 1955 ~)

오산 출생. 제3대 오산문화원장. 예술인. 의료법인 분도의료재단(오산성모의원) 이사장, 오산중·고 총동문화장

재임기간 : 2002년 9월 5일~2006년 11월 13일 / 사무국장 염동원

2004

03월 ~ 12월

청소년 농악교실운영

『오산문화』 35, 36, 37, 38호 발간

05월 04일

오산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백일장

09월 13일 ~ 25일

제9회 독산성문화예술제 및 한일 '자매도시 문화사진전'

10월

제1회 오산청소년문학상 공모전

12월

『궐리사 성적도』 발간

2005

『오산문화』 39, 40호.

06월 05일

성호고등학교 '찾아가는국악공연'

10월 14일 ~ 20일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공사

11월 28일

'오산문화인의 밤' 행사

12월

『오산의 마을신앙』 발간

2006년

2010년

오근택(吳謹澤, 1958 ~)

오산 출생. 제4대 오산문화원장. 예술인. 의료인(약사, 전 오산시약사회장). 중앙대 약학대학 졸업. 중앙대 약학대학원 수료.

재임기간: 2006년 11월 14일 ~ 2010년. / 사무국장 조용호, 유종대

2007

03월 04일

제3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축제 한마당 개최

05월 19일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06월	『오산문화』제43호 발간
06월 13일 ~ 17일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07월 06일	문화탐방 경기도 양주
09월 01일 ~ 02일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10월 06일 ~ 19일	오산시 6개동 중 4개동 동별 순회공연
11월 03일	문화탐방 충북제천
11월	『오산문화』 제44호
11월	제3회 오산청소년문학상 공모
12월	향토사례집 『오산의 역사와 독산성』 발간
12월	오산문화달력 제작

2008

01월 01일	새해맞이행사
01월 07일	오산청년회의소와 신년인사회 공동주관
02월 21일	제4회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축제한마당 개최
06월	『오산문화』 제45호 발간
06월 21일	역사유적지 문화탐방 - 강원도 정선
07월 2~6일	제18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
07월 26일 ~ 8월 8일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 오산시청광장
09월 05일~06일	제7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09월 16일 ~ 19일	오산시민의 날 행사 찾아가는 공연 ‘광명’ ‘오산외미농악’ ‘에스프리’ ‘아프리카’
10월 23일	찾아가는 공연 ‘운천고등학교’
11월 01일	문화유적지 및 문화탐방 - 속리산 법주사 및 삼년산성
11월 14일	수능생 한마음 콘서트-오산지역에서 처음 치르는 수능시험을 축하하고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콘서트 개최-장소: 문화예술회관
12월	『오산문화』 제46호 발간
12월	『오산의 문화유적을 찾아라』 만화책자 발간
12월	『오산의 구비전승1』, 『오산의 민속2』 책자 발간



2009

01월 01일	새해맞이행사
02월 09일	제5회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축제한마당 개최
03월 ~ 12월	청소년 농악&가야금&해금교실(성호중, 운천중)
06월	『오산문화』 제47호 발간
06월 13일	역사유적지 문화탐방 - 강화도
07월 31일 ~ 08월 14일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 오산시청광장
09월 04~05일	제17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 - 용인시
09월 26일	문화유적지 및 문화탐방 - 인천세계도시축전
10월 09일	찾아가는 공연 - 팝스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0월 17일	국화전시회 - 전자바이올린
12월 22일	고3학생을 위한 송년콘서트 - 문화예술회관
12월	『오산문화』제48호 발간
12월	제5회 오산청소년문학상 공모전
12월	『오산신문잡지기사 자료집』 발간
연중	오산세교2지구 지명용역사업

2010

01월 01일	새해맞이행사
02월 27일	제6회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축제한마당 개최
03월 ~ 12월	청소년 전통악기교실(성호중, 원일중)
05월 01일	역사유적지 문화탐방 - 오산
06월	『오산문화』 제50호 발간
07월 31일~8월 14일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 오산시청광장
09월 09일~10일	제8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 시흥시
10월 09일	제1회 오산독산성문화제
10월 09일	제1회 오산독산성 문화제 백일장 · 사생대회
10월 09일, 11월 06일	찾아가는 공연 (오산독산성문화제 공연 - 팝스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10월 25일 ~ 12월 30일	오산청소년문학상 공모
11월 09일 ~ 30일	오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12월 04일	찾아가는 공연/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12월	『오산문화』 제50호 발간
12월	오산역사문화달력 제작

2011년
—
현재

임명재(1952~)

제5대오산문화원장. 예술인. 성호초, 오산중·고 졸업.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오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 제3대오산시 의회의원, 아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재임기간 : 2011년 ~ 현재 / 사무국장 유종대

2011

01월 27일	제18차 정기총회 및 문화원장 4대 5대 이·취임식
03월 ~ 06월	학부모스터디 운영
03월 ~ 12월	청소년전통악기교실-성호중, 원일중
03월 ~ 12월	오산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동
05월 27일	문화탐방 - 순천
05월 28일	사랑방 문화클럽 공연 - 오산중앙전통시장에서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06월	독산성스토리텔링 공모전
09월	『오산문화』 제51호 발간
09월 30일 ~ 10월 01일	제18회 경기민속예술제 - 양주시 별산대놀이마당
10월 09일	2011 오산다문화페스티벌
10월 14일 ~ 16일	제2회 오산독산성문화제
10월 ~ 12월	오산청소년문학상 공모
11월 15일	오산문화원 원사 이전
11월 19일	문화탐방 - 속초
11월 25일	사랑방 문화클럽 공연 -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효 콘서트
12월 07일	찾아가는 공연 -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12월

12월

12월

오산역사문화달력 제작

사랑방문화클럽 공연 - 독산성의 하룻밤 뮤지컬 공연(12. 18)

『오산문화』 제52호 발간

2012

01월 1일

신년해맞이행사

01월~12월

오산시문화관광해설사 운영

02월 5일

제7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축제한마당

03월 14일

제19차 정기총회

03월 27일

오산문화원 현판식

03월~12월

청소년 전통악기교실 - 성호중, 원일중, 운천중

04월 29일

문화탐방 - 전남 부안

05월 31일 ~ 6월 2일

제3회 오산독산성문화제

06월

『오산문화』 제53호 발간

08월~12월

오산실버합창단 운영

09월 21일~22일

제9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 화성시실내체육관

09월 22일

테마가 있는 인문학 2012 -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별자리여행 - 남양주
실학박물관

09월 25일~12월 14일

전래놀이를 통한 예절지도사 양성 교육

10월 11일

문화탐방 - 진주남강유등축제

10월~12월

제8회오산청소년문학상 공모

11월 27일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 고3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뮤직페
스티벌

12월 6일

오산실버합창단 발표회

12월 13일

어르신 문화축제 - 실버FM 요즘할매 요즘할배

12월21일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작은콘서트 -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효 콘서트

12월 28일

오산문화원 문화인의 밤

12월

오산역사문화달력 제작

12월

『오산문화』 제54호 발간

2013

01월 1일	신년해맞이행사
01월 ~ 12월	오산시문화관광해설사 운영
02월 24일	제8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축제한마당
04월 27일	오산역사문화교실 - 아빠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둘레길 걷기
04월 ~ 12월	청소년 전통악기교실 - 원일중, 운산초
05월 10일 ~ 12일	제4회 오산독산성문화제
05월 25일	문화탐방 - 춘천마임축제
05월 ~ 12월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운영
06월	『오산문화』제55호 발간
06월 ~ 07월	오산역사문화바로알기 강좌 - 5주
06월 ~ 12월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07월 ~ 11월	2013 테마가 있는 인문학 - 실학기행 - 5회
09월 ~ 10월	2013 테마가 있는 인문학 - 실학교실 - 5주
09월 14일	오근택 전 오산문화원장 오산시민대상 - 문화예술부분 수상
09월 27일 ~ 28일	제19회 경기민속예술제 - 포천시
10월 07일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 개소식
10월 ~ 12월	제9회 오산청소년문학상 공모
11월 23일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
12월	4일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작은콘서트 -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12월 17일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작은콘서트 -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효 콘서트
12월	오산역사문화달력제작
12월 23일	오산문화인의 밤 - 파티아이
12월	『오산문화』 제56호 발간



지산동 겨울비

이규황

당신은 그 날도 기지춘 정문 앞
 휘황한 등불 아래서 비에 젖었지요
 미처 다 떨어내지 못한
 국화 꽃잎이 젖고 깨금발로 콩콩 뛰며 추위에 떨던
 당신도 하염없이 비에 비에 젖었지요
 폐쇄된 철도 건널목
 침묵 밑 자갈 틈새 명아주꽃이
 몇 송이 고개를 꺾고
 들어주는 이 없어도 노랗 불렀지요
 당신의 그 탐스럽던 젖무덤이
 꿈속에 그려보던 신천지 아메리카
 아아 그땐 황홀한 눈물에 젖었지요
 명아주꽃이 몇 번 더 지고 나서
 당신은
 쓸쓸한 웃음만 남아 겨울비를 흘리네요
 떠난 제임스 일등병 다시 돌아오지 않고
 톰슨 중사마저 당신을 멀리 할 때
 영원히 떠나갈 이 불임의 땅
 겨울비에 축축이 젖네요



시평 | 시인 서정택

이규황 시인은 1961년 평택군 서탄면 내천리에서 태어나 오산 중·고등학교와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가슴이 뜨거운 시인이었습니다. 1997년 6월25일 투병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시인이지요. 그의 유고시집 발문에서 이은봉 시인은 “이규황 시인의 시에 함축되어 있는 자아의 형상은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동시에 참다운 진실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예술가로서의 자아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고, 분단 조국의 현실을 온몸으로 앓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아가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故 이규황 시인은 민족문제(분단)를 형상화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고향인 평택 지역이나 그의 생활터전이었던 오산의 특수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발췌)

「지산동 겨울비」에서의 지산동은 경기도 송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25일 새벽,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은 연합군의 참전으로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파죽지세로 같은 달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지요.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정전회담이 성립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산동 겨울비」는 정전협정 이후 쑥고개(송탄) 미군비행장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란 국토를 피폐하게도 만들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역시 군인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 중에서도 여성들의 수모는 더할 나위 없었겠지요. 이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 대부분이 남성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워야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족보존에 대한 성적욕구가 강했을 것입니다. 점령군

이 되었던 침략군이 되었던 점령당한 지역 대부분의 약탈행위가 강간인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명아주꽃으로 은유되고 있는 시에서의 여성은 양공주입니다. 힘이 없어 외세에 의존해 침략군을 격퇴해야 했던 참으로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에 비에 젖고 있는 명아주꽃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겨울비를 닮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故 이규황시인은 그 명아주꽃의 아픔을 되새기는 도중 명아주꽃이 겨울비에 젖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날에 추하게 됩니다. 아마도 명아주꽃의 아픔이 온 몸을 찢어 멍든 가슴을 안은 채 요절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면서도 서정적인 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중의 한 사람인故 이규황시인의 시가 많이 읽히고 노래되어 지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과 명아주꽃의 명복을 빕니다.



김수철 KIM, SUCHUL

오산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주요개인전

- 2014 문화공장 오산 - 기획초대전, 오산
- 2014 리더스 수갤러리 - 기획초대전, 서울
- 2010 스페이스 함 - 기획초대전, 서울
- 2009 숲 갤러리, 서울
- 2006 대안공간 눈 - 기획초대전, 수원
- 2004 대안공간 소나무 갤러리 - 기획초대전, 안성 외 5회

주요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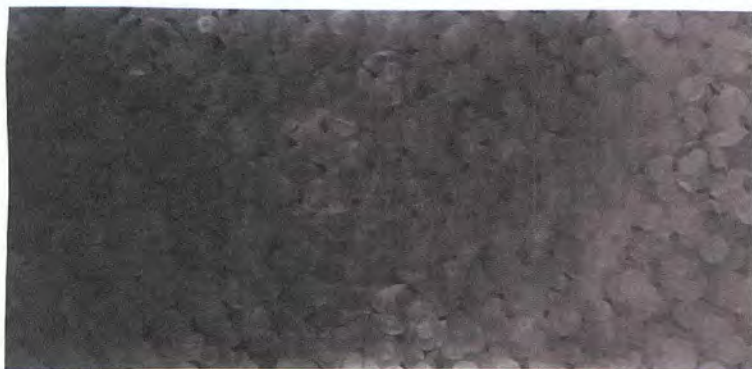
- 2013 고백의정원,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
부산국제아트페어 특별전, BEXCO, 부산
여(女), 유(癒), 문화공장오산, 오산
Again 1948, 문화공장오산, 오산
검은성자와 하얀악마-김수철, 신원재2인전,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 2012 DOORS ART FAIR 특별전, 임페리어 팰리스호텔/gallery4walls, 서울
City garden-숲-포스코기획초대, 포스코갤러리, 포항
- 2011 오늘, 또 다른 이 날,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행궁동 프로젝트-행궁동 이 작가를 기억하다, 대안공간 눈, 수원
이 작가를 추천한다 33전(비평가선정)-김달진연구소기획, 숲 갤러리, 서울
ARTISTS IN OZ-개관특별기획, 수원시미술전시관 OZ SPACE, 수원
- 2010 경기도 프로젝트-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8 11개의 방, 대안공간 눈, 수원
세월, 그 흔적 속으로 거닐다,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내 건너 창작마을 오픈스튜디오, 내건너창작마을, 화성
- 2006 슈룹프로젝트 ASIA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시각예술 소그룹의 신 미술문화운동을 위한포럼-독립작가연구회, 대안공간 눈.

공모/레지던시

- 2006 경기문화재단공모 2006전시지원작가선정
- 2007-2008 내 건너 창작마을 입주작가



Gnosis,
120 x 120cm, 흑연, 그을음, 돌가루, on pane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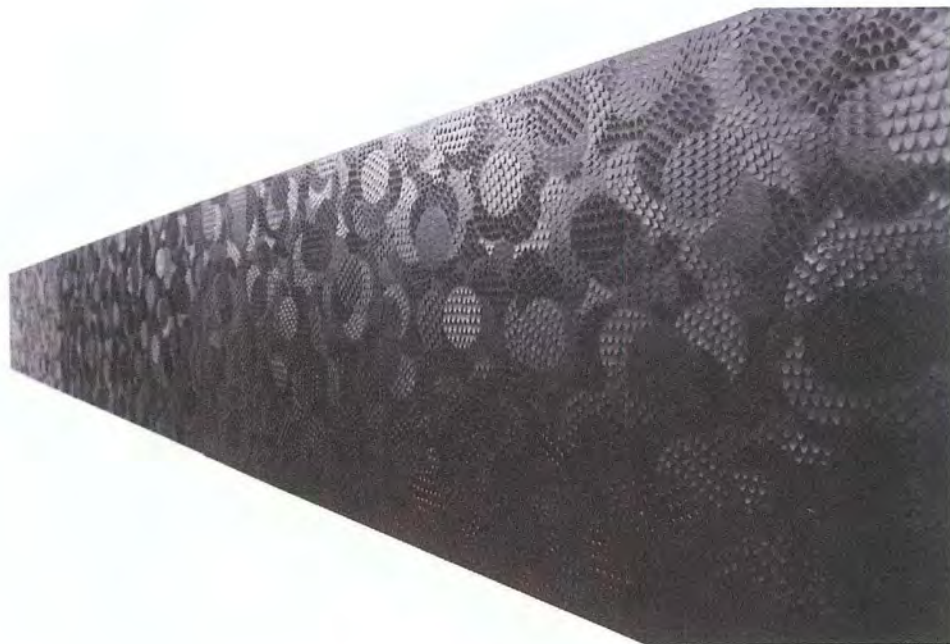


Gnosis,
199 x 100cm, 흑연, 그을음, on pane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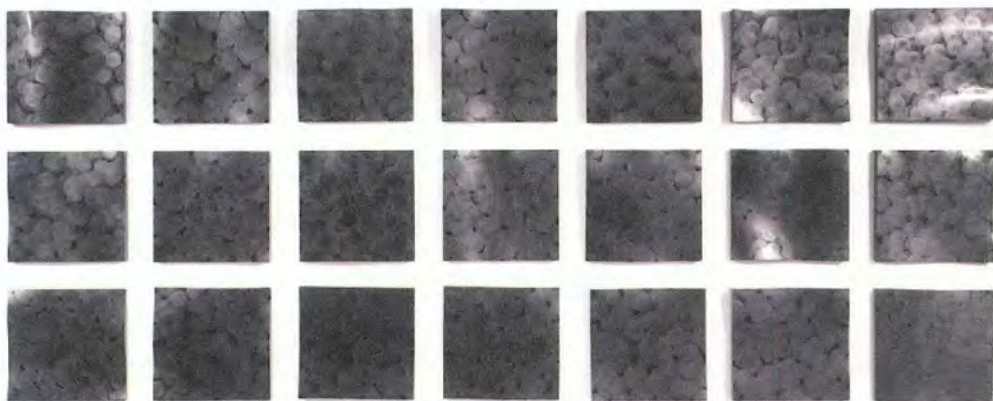


Gnosis - 天蓮華

130 x 160cm, 흑연, 그을음, 돌가루 on panel,
2006.



Gnosis,
50 x 366cm, 흑연, 그을음, 돌가루, on panel,
2010.



Gnosis,
41 x 41cm, X21EA, 흑연, 그을음, on panel,
2010.



이괄 과 오산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한민규

역사는 승자의 기록

역사는 흔히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란(戰亂)과 역모(逆謀)를 통해 정권을 잡아 왕조를 일으키거나 제왕(帝王)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이 승리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을 비롯한 가계를 신격화시켜 평범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권력의 기반을 다졌다.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록한 것이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신화와 조선의 건국을 찬양한 용비어천가 등이 일례이다.

또 다른 예는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수양대군이 친조카인 어린 단종을 폐위하고 정권을 잡은 조선시대 최고의 변란이었지만, 정권을 잡은 세력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계유정난은 계유정변(政變), 또는 계유정란(靖亂)이 아니라 정난(靖難)인 것이다. 정변(政變)은 정치상의 큰 변동으로 쿠데타 암살 등에 의한 정권변동 즉, 역모를 말하는 것이고, 정란(靖亂)은 정치적인 패악(悖惡)이나 어지러움을 뜻한다. 계유정난의 정난(靖難)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평안케 했다는 말이다. 때문에 집권한 세조가 자신이 일으킨 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해 만든 말이 계유정난이었다.

이렇듯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공신이 되어 역사 기술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패배와 실패로 인해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고 사라져간 인물들도 많다.

백성들이 사랑한 패자(敗者)

실패한 인물들 중에 애달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출중한 능력과 정륜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으나 한 번의 패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수많은 인물과 영웅들이 있었다. 그중에 백성들의 사랑으로 민간에 남아 신격화된 사람들도 있다. 고려의 마지막 명장 최영장군과 중국 『삼국지연의』에 유비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관우가 대표적이다.

최영이나 관우에는 못 미치지만 민간에 오랫동안 회자되고 사랑받고 있는 인물이 이괄(李适)이다.

이괄은 조선 인조 때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했던 인물인데, 그에 대한 전설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전국적인 분포를 갖고 있는 이괄과 관련한 지명과 전설은 서울에 ‘말죽거리’, 충청북도 보은의 ‘이괄바위’, 충남 공주시 ‘조왕동’,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용우물’ 등이 있고 강원도 홍천에 무려 10여개의 지명관련 설화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청개구리 이야기와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괄 부친의 무덤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떡인 ‘인절미’의 유래도 이괄의 난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 오산시에도 금암동에 ‘장군마당’, ‘장군바위’, ‘말무덤’, ‘말우물’이 있고 세교동에 이괄의 가짜무덤 즉 ‘허총(虛塚)’이 있었다고 한다.

산신으로까지 추앙되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오산에도 그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는 이괄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게 되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이괄의 생애

이괄(李适)의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자(字)는 백규(白圭)이며, 경기도 여주에서 1587년(선조 20년)에 태어나서 1624년(인조 2년) 이천 묵방리(墨防里)에서 죽었다. 무신으로 명천현감, 태안군수, 경성판관, 영흥부사, 제주목사, 북병사, 한성부윤, 좌포도대장,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 등을 지냈고 인조반정에 공이 컸으나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했다가 관군에 패해 38년의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괄의 생애를 살펴보자

- 1599(선조32)년 선전관 이괄이 도망가는 항왜(降倭)를 잡아 참수하다.(13세)
- 1599(선조32)년 명천현감(名川縣監)이 되었다.(13세)
- 1603(선조36)년 제주도 대정(大靜)에 봉해졌다.(17세)
- 1606(선조39)년 형조좌랑(刑曹佐郎)의 관직을 제수 받다.(20세)
- 1607(선조40)년 태안군수(泰安郡守)를 제수 받다.(21세)
- 1607(선조40)년 경성판관(鏡城判官)을 제수 받다.(21세)
- 1610(광해2)년 영흥부사(永興府使)로 있



었다.(24세)

- 1616(광해8)년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제수 받다.(30세)
- 1622(광해14)년 북병사를 제수 받다.(36세)
- 1623(인조1)년 3월 12일 북병사(北兵使)에 제수되었는데 떠나지 않고, 인조반정에 가담하다.(37세)
- 1623(인조1)년 3월 13일에 인조반정 때 공을 세우다.(37세)
- 1623(인조1)년 5월 27일 한성부윤, 좌포도대장으로 있었다.
- 1623(인조1)년 6월 24일 평안도병마절도사 겸 부원수인 이괄을 미리 보내 북방의 오랑캐를 막도록 하다.
- 1623(인조1)년 10월 18일 인조반정의 2등 공신이 되다.
- 1624(인조2)년 1월 17일 문희, 이우, 권진 등이 이괄 등의 변란을 고하다.(38세)
- 1624(인조2)년 1월 21일 이귀가 이괄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 1624(인조2)년 1월 22일 양사가 이괄을 국문할 것에 대해 합계하다.
- 1624(인조2)년 1월 24일 부원수 이괄이 금부도사 고덕률, 심대림, 선전관 김지수, 중사 김천림 등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하다.
- 1624(인조2)년 2월 11일 관군이 적과 안현(鞍峴)에서 크게 싸웠는데, 적병이 크게 패하여 도망치다.
- 1624(인조2)년 2월 14일 대장 신경진의 군관이 와서 이괄, 한명련 두 역적이 죽

은 정상을 아뢰다.

- 1624(인조2)년 2월 15일 적장 이수백, 기익현이 이괄, 한명련의 수급을 행재소에 바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괄의 간략한 생애를 정리했다. 13세부터 시작한 관직 생활이 주로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길을 걸었다. 인조반정이 참여하기전에도 북방 방어의 요직인 북병사로 제수할만큼 광해군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인조반정후에 다시 평안도병마절도사겸 부원수로 임명되었을 만큼 이괄의 군사적 역량을 크게 인정받고 있었다.

이괄의 성품과 평판

13세인 선조 32년(서기 1599년)선전관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에 명천현감이 되었다. 아무리 조선시대에 관직에 나아가는 연령이 낮았다고 해도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어린이인 이괄은 선전관과 현감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17세인 선조36년(1603년)에는 비변사 회의에서 이덕형이 “전에 명천현감으로 있었으므로 오랑캐의 정세를 잘 아는데, 이미 대정현감에(이괄이) 제수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니 바꾸어 보낼 수 있습니다”라며 천거하기도 했다.

24세 때인 광해군 2년(1610년)엔 조정에서

북방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철원에 조방장(助防將)을 두려고 할 때 도체찰사가 “조방장으로 합당한 인물로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지만 일을 주관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찾기가 힘들니다. 영흥부사 이괄이 본래 일 처리하는 솜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막 고령에서 영흥으로 옮겨왔는데 또 회양으로 옮기게 한다면 정사(政事)하는 체모가 아닐 듯하고, 또 영흥 역시 중진(重鎭)입니다”며 이괄의 일처리 솜씨를 높이 평가했다.

광해군 4년(1612년)인 26세엔 광해군이 북방의 염려를 좌상 이항복과 논할 때, 왕이 “북병사를 아직까지 체차하지 않았는데, 만약 체차한다면 어느 사람이 합당하겠는가?”라고 묻자 이항복은 합당한 사람이 전혀 없다며 “신진 무사 중에 이광영, 이괄, 이종일을 잘 키우면 병사로 삼기에 합당할 것입니다”고 아뢰었다.

이괄은 36세인 연산군 14년(1622년)에 결국 북병사가 되었다. 당시 후금의 팽창으로 북방에서 전운이 감돌 때 이를 막아낼 뛰어난 장수는 ‘오랑캐의 정세를 잘 아는’, ‘일을 주관하는 재주를 가진’, ‘본래 일 처리하는 솜씨를’ 가지고 있는 이괄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국난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지켜낼 장수는 이괄밖에 없다고 왕과 조정신료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 있다.

인조반정 시(36세, 1623년)에 반란군은 홍제원에 모이기로 약속했으나 역모가 있다는 고변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대장 김류가 늦장을 부려 늦게 도착했다. ‘이귀, 김자점, 한교

등이 먼저 홍제원으로 갔는데, 이때 모인 자들이 겨우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고 김류와 장단의 군사도 모두 이르지 않은 데다 역모에 대한 고변서가 이미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군중이 흥흥하였다. 이에 이귀가 병사(兵使) 이괄을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은 다음 편대를 나누고 호령하니 군중이 곧 안정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괄은 군사들에게 크게 신망을 얻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류가 이르러 전령(傳令)하여 이괄을 부르자 괄이 크게 노하여 따르려 하지 않으므로 이귀가 화해시켰다’는 대목에서는 단순 명료한 무인으로서의 원칙과 강단을 보게 된다.

인조 1년(1623년)에 김류가 아뢰길 “북병사 이괄을 그대로 부임하게 하시겠습니까. 북방이 중하긴 하지만 나라에 근본이 되는 서울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괄은 지금 대공을 세웠으니 도하(都下)에 두어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방은 이 사람이 아니면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시 중국은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일어나는 시기로, 조선의 북방은 전운의 그림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때문에 북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은 최고의 장수를 보내 국경을 방어해야 했다. 이 자리의 책임자가 이괄밖에 없다고 왕이 인정한 것이다.

또한 같은 해 6월 비변사가 “추방(秋防)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오랑캐의 정세가 날로 더욱 염려스러우니 알맞게 대처하여 방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부원수 이괄



을 미리 내려 보내 미리 계획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왕에게 아뢰었다. 당시 조선 조정 전반에 최전선인 북방의 방비를 맡을 사람은 이괄밖에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괄은 진심으로 북방의 방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힌다.

(인조 1년, 1623년 8월16일)부원수 이괄이 북방으로 가기 전에 왕을 만나 아뢰길 “성상께서 신이 재주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곤외(閩外)의 중임을 나누어 맡겼으니, 이때야말로 신이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고 했으며, (같은 해 8월 17일)“신이 중임을 맡고 밤낮으로 떨리고 두렵습니다. 금년에 불행하게도 적병이 침입해 오면 군사의 많고 적음과 강하고 약한 차이가 현격히 다를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한번 죽기로 싸워 나라의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괄은 북방의 중요성을 알고 목숨을 걸고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을 정도로 충직한 장수였다.

그러나 사료에는 이괄이 인조반정 때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2등 공신에 책록된 데다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외직으로 밀려나자 반심을 품고 변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괄의 난

이런 이괄이 난을 일으킨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반정세력들은 계파별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반정세력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이괄은 반정 당시에 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이 된 데는 인조반정을 일으킨 주축세력과 동지적 유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반정직전해야 비로서 반정세력이 이괄에게 반정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당시 명·청 교체기의 중국이 혼란하고 후금의 침략위협에 직면하고 있던 조선은 당대 최고의 장수인 이괄에게 북방의 수비를 맡겼다. 북방수비대의 병력은 약 1만 5천여 명 정도였다. 그 중 주력부대인 1만여 명은 영변에서 부원수인 이괄이 이끌고 있었고, 지원부대 5천여 명은 도원수 장만의 지휘아래 평양에 주둔하고 있었다. 주력부대 1만여 명을 지휘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조선 북방수비의 핵심적 역할을 이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괄이 북방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정책을 보수하며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을 때 중앙의 집권세력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처음부터 반정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이괄은 집권세력에 의해 제거대상이 되고, 또한 북방수비대의 주력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있는 이괄의 군사력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리하여 이괄과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역모의 고변이 올라오게 된다.

인조는 이괄을 신뢰하여 역모의 고변을 “이

팔은 충의스런 사람인데 어찌 반심을 지냈겠는가. 이것은 흉악한 무리가 그의 위세를 빌리고자 한 말이다.”(인조 2년 1월21일), “이팔은 충의스런 신하인데 어찌 두마음을 품었을까 있겠는가. 흉악한 무리의 근사하지 않은 말만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흉악한 사람의 계책에 빠지는 것이다. -중략- 부원수의 직임은 이팔이 아니면 맡을 수 없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인조 2년 1월22일)며 물리쳤다.

그러나 조사관을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했는데 역모의 고변이 무고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류 등 집권세력은 이팔과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팔을 부원수직에서 해임하고 국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조는 이팔의 아들 전과 한명련을 압송하여 국문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고 기자헌 등 중앙관료 40여명을 역모혐의로 하옥시켰다. 아들 이전을 압송하기 위해 금부도와 선전관 등이 영변에 도착하자 분노한 이팔은 이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전이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할 경우 역모의 혐의를 쓰게 될게 뻔했고, 북방수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집권세력의 모함에 분노한 것이다. 이때 같은 역모혐의로 한양으로 압송되던 구성부사 한명련을 구출하여 1만 2천명의 정병과 100여명의 항왜군(降倭軍)을 선봉으로 삼아 인조 2년 1월 22일 서울로 진격했다. 이것이 이팔의 난의 시작이다.

관군을 수차례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한양

에 입성한 이팔은 선조의 아들 흥안군 이제(李璉)를 왕으로 추대했다. 인조와 집권세력은 한양이 함락될 위기가 닥치자 공주로 피난가고 말았다.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도망한지 30년도 채 되지 않아 도성인 한양을 왕과 대신들이 다시 버리고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집권세력은 공주로 도망가기 전에 반란군과 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자헌 등 옥에 갇혀있던 수십 명의 대신들을 무참히 처형시켰다.

한편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이팔을 쫓아온 장만은 정충신, 남이흥의 의견을 따라 서대문 밖의 안현(鞍峴)에 진을 치고 이팔의 군사를 유인하고, 지형적인 유리함을 이용하여 반란군을 패퇴시켰다. 안현전투에서 대패한 이팔과 한명련은 패잔병을 이끌고 수구문(水口門)으로 빠져나와 이천 묵방리로 퇴각했으나 반란군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여기서 이팔의 부장 기익헌, 이수백 등이 이팔과 한명련 등 9명의 목을 베어 투항하며 이팔의 난이 끝이 났다.

이팔은 난을 일으키기 전까지 왕과 조정 전반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평판도 좋았다.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하며 반정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거사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등 공신이 되었고, 집권세력의 모함과 책략에 빠져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반정세력이 이팔을 이용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팔의 난이 발발하는 것이다. 이팔은 반란을 일으켜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비록 3일 천하를



열었지만 이천 묵방리에서 38세의 젊은 나이로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이다.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 도성인 한양을 점령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던 유일한 사람이 이괄이었다.

이괄의 난의 영향

이괄의 난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에 자리하고 있다. 임진왜란(1592~1598년)의 발발로 질곡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전란극복과 명·청 교체기의 중국 상황을 관망하며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던 광해군을 폐위하고 반정에 성공한 인조가 즉위한다(1623년). 그리고 1년 뒤 이괄의 난(1624년)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627년 정묘호란이라는 전란을 겪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9년 뒤엔 병자호란(1636~1637년)의 병화를 입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불과 40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반정과 수차례에 걸친 변란을 치렀고 두 번의 전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질곡의 역사가 펼쳐졌다.

그야말로 전쟁과 반란의 시대의 한가운데 이괄의 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전국 토를 황폐화시켜 전국적으로 170만결의 농토가 54만결로 줄어들게 되었다.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그 마련책으로 소정의 곡물이나 돈을 납속한 사람에게 특전을 주는 납속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신분과 상관없이 특전이 주어져 면전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전란을 전후해서 백성들의 삶이 처

참해져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 조선사회를 지탱해 오던 신분질서가 해이해지고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왕권 기반이 취약했던 광해군은 계축옥사를 통해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인목대비를 유폐시켰으며, 명·청 교체기에 중립외교를 펼치며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계축옥사와 중립외교를 빌미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망할 뻔했는데 명이 원군을 보내주어서 다시 살려주었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명분으로 친명배금 정책으로 외교노선이 변경되었다. 임진왜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겨우 안정기로 접어드는 순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다져놓은 안정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만다.

이괄의 난은 인조정권이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권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란을 맞았으며 왕이 도성을 버리고 공주로 파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북방의 방어부대가 반란군과 그 진압군에 동원되면서 북방의 방어체계가 무너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조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비록 난이 평정되고 인조가 왕위를 계속 이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3년 뒤 후금의 침입으로 정묘호란이 발발하였고 그동안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던 나라를 형님의 나라로 받아들여야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부모의 나라 명나라와 형의 나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끼여 있던 조선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만다. 정묘호란이 끝나고 9년 뒤 병자호란(1636년)을 겪는다.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은 청나라는 조선 길들이기에 나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황금과 백금 1만량과 전마 3천 필의 세폐와 정병 3만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인조정권은 이를 거부했다. 청의 협박과 제의를 조선이 묵살하자 청 태종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삼전도에서 인조로부터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의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받아내고 만다. 전쟁에서 저 형제 관계가 군신관계로 바뀌는 것보다, 엄청난 세폐와 군사지원으로 조선의 경제는 파탄지경이 이르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병자호란은 조선백성 50만 명을 잡아가면서 비참한 조선에 더욱 더 고통스러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을 몰아왔다.

백성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이괄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5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이 시대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권력과 돈과 운이 없었던 백성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와 ‘만약에 00가 했다면~’이란 가정 하에 이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13세에 선전관이 되어 공을 세우고 38세에 난을 일으켜 도성을 점령하여 새로운 왕을 세웠던 유일한 인물 이괄이 왕이 되었다면, 백성들의 삶이 이보다는 나았을 것이란 바람과 가정이 이괄 설화를 만들고 향유하게 했던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실패한 반란의 수괴에게서라도 위안을 찾으려 했을까? 이 당시 백성들의 삶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안타까움을 더 한다.

이괄과 부친 무덤 이야기

이괄과 관련된 설화는 다양하고 많이 있으나 부친의 무덤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고 많이 남아있다. 이괄 부친의 무덤이야기는 풍수사상과 청개구리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다. 이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설화가 전해지는 홍천과 이괄이 태어난 여주, 그리고 평택에 남아있는 전설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이괄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괄장군이아기-홍천의 이괄전설 전승양상

남면 양덕원에서 국도를 따라 홍천읍 쪽으로 오다가 보면 월천리가 나오고 거기서 1km쯤 가면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괄 장군의 아버지 이육의 묘가 있었다고 한다. 평시에 이괄의 부친이 미리 묘자리를 잡아놓고 팔에게 이끄기를 “내가 죽거든 시신을 반드시 거꾸로 묻어라. 그 때는 팔 서 말, 콩 서 말, 조 서 말,



수수 서 말을 함께 묻되 거꾸로 묻는 것을 잊지 말라.” 고 당부하였다. 부친이 죽자 항상 부친의 말을 거스르던 이괄은 시신을 거꾸로 묻는 법도 없거니와 부친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또 부친의 말을 거역할 것임으로 얹어서 묻으라고 한 것으로 믿고서 똑바로 누웠다. 그리고 이괄은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성공하였다. 그러나 논공행상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데다가 아들이 역모로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휘하 군대를 몰아 순식간에 서울에 입성하였다.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갔다. 서울에 입성한지 3일 후에 이괄은 서울의 서쪽 지금의 만리동 전투에서 패하여 여주와 이천 쪽으로 도주하다가 부하들에게 목이 잘렸다. 그리하여 삼일천하의 막이 내렸다.

한편 공주에 피난한 왕은 이괄이 쉽게 입성한 것은 반드시 천우신조나 조상의 음덕 때문으로 알고 군사를 시켜 비밀리에 이괄의 선친 묘소를 파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공은 장수가 되고 수수는 철환, 팔은 조총, 조는 총알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시신을 반쯤 용이 되어 산으로 기어오르려고 하였다. 군사들은 힘을 모아 용을 토막 내어 버렸다. 만일에 시신을 거꾸로 묻어 개울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면 용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괄이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의 도움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이괄은 비운의 역적 곧 ‘눈물영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괄에 얽힌 전설-여주군사

조선시대 역사의 일면을 보면 인조반정이란 것이 있다. 그런데 인조반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괄이고, 이괄 하면 난(亂)이라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야 광해군 때부터 인조반정을 거쳐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인조반정은 1623년 서인(西人)파인 이괄·김유·김자점·이괄 등이 주동이 되어 폭정을 일삼는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 임금을 옹립한 것을 말한다. 인조반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괄은 공신책록 때 1등 수훈을 세우고도 2등으로 밀려나자 속으로 반감을 사고 원

한을 품었다. 반정이 있고 난 다음 해에 난을 일으키니 도성 안의 백성들은 모두 피난을 가고 임금과 신하들도 모두 도망치다시피 공주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괄도 처음에는 성공을 하는 듯하다가 장만(張晩)이 이끄는 관군에게 패하여 죽고 말았다. 이괄이 태어난 해는 1587년(선조 20),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다섯 해 전이다. 그가 성장할 시기는 임진왜란이 한창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글공부를 하니 문장과 글씨가 뛰어나 그를 보고 모두들 크게 성공할 인물로 보아왔다. 그러나 그는 문관으로의 길을 가지 않고 무관으로 나가 인조반정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후 한성부윤을 거쳐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압록강변의 국경수비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부친은 유언을 남기겠다며 가족들을 모두 방으로 모이게 했다. 저녁이 되자 식구들이 모두 모였는데 유언을 하겠다던 부친은 무슨 이유인지 아들들만 방에 남게 하고 여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부친은 유언을 하였는데, 자기가 죽으면 죽은 몸을 산에다 토장(土葬)을 하지 말고 동네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먹는 우물 속에다 장사를 치르되 돌을 매어 달아 집어넣어 바로 세워서 수장(水葬)을 하라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눈치 채지 않도록 가시신(假屍身)을 만들어 상여를 메고 산에다가 묘를 쓰는 것처럼 하라고 자세히 이르고 눈을 감았다.

이괄의 부친이 이런 유언을 한 것은 자신이 유명한 술사(術士)인데다 동네 우물이 수장지로서는 대명당이 있기 때문이다. 부친의 유언을 들은 이괄과 형제들이 기겁을 하여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부친의 유언이니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장례를 끝냈다. 부친의 장례를 마친 이괄은 모든 것을 숨긴 채 다시 임지로 돌아갔다가 다음해 소상일(小祥日) 제사를 지내고 다시 다른 임지로 돌아다니니 어느덧 두 해가 지나 대상일(大祥日)이 돌아왔다.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그만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무슨 이유로 싸우게 됐는지는 모르지

만 아들과 며느리들이 문상객이 모인 앞에서 머리채까지 휘어잡고 싸우는 것이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별안간 큰며느리가 악을 쓰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죽은 사람을 산에 묻지 않고 수십 가구가 먹는 공동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고 말한 것이다. 며느리가 떠들어댄 말이 구름처럼 모인 사람들 앞에 퍼지자 순식간에 소동이 일어났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우물가로 몰려가 물을 퍼내기 시작했는데 햇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한밤중이 되자 드디어 우물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별안간 우물 밑바닥 한쪽 구석에서 용의 모양이 다 된 이무기 한 마리가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물을 퍼던 장정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다 한다.

일이 이렇게 되니 난처한 것은 이팔이었다. 꿈속에 부친이 하는 말이, “이번 삼년상이 지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여 너도 크게 출세를 하게 되거늘, 중족(中足 : 남자 생식기)이 없는 여자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렸다. 그러나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있으니 서둘러라.” 하고는 어느 곳 강가 풀숲에 가면 대망(大蟒 : 이무기)이 있는데 그 이무기는 우물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제 바로 아비이니 다시 장사를 지내달라는 것이었다. 단, 이번에는 어느 강가 야산에다가 묻되 머리를 산 쪽으로 향하지 말고 강 쪽으로 해서 묻으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이팔이 급히 그곳을 찾아 달려가니 멀지 않은 곳에 과연 큼지막한 구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틀고 있었다. 구렁이는 이팔이 가까이 다가가자 꼬리를 치며 반가워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현몽을 받은 이팔은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형제들과 가까운 친지 남성들만 모여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낮이 아닌 밤중에 다른 사람들 몰래 급히 하느라고 아버지의 부탁인, 머리를 강 쪽으로 두는 것을 잊었다.

그 후 이팔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죽었다. 그리고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삼족을 멸하라는 왕명이 떨어지니 가족이 모두 참형을 당한 것은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이팔의 아버지도 부관참사를 위해 묘가 파

헤쳐지게 됐다. 명을 받은 군사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묘를 파헤치자 하늘에서는 뇌성벽력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며 무덤 속에서 한 마리의 용이 나와 어디론가 도망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전의 일을 모두 알고 있던 군졸 하나가 화살을 매겨 시위를 당겼다. 소낙비 속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던 용은 방향을 잘못 알고 산 쪽으로 머리를 돌려 날아가다 그만 화살에 맞고 땅으로 떨어졌다 한다.

이상은 풍수에 얽힌 이팔과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만일 그때 이팔의 부친이 용이 되어 승천을 하였다면 이팔의 운명도 바뀌었을 것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용우물의 전설-평택시사

고덕면 여염리에 있던 이 샘은 지금은 한우목장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이 희미하다. 직경 약 3m에 깊이 약 3m가 되는 우물에는 이팔의 아버지 묘를 파헤치는데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담겨져 있다. 선조, 인조를 거쳐 무신으로서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지낸 이팔은 조정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유린하고 남진하다가 장만이 거느린 관군과 길마재에서 결전하여 참패당하고 이천으로 도망하던 중에 부하 이익현·이수백 등에게 참살되었다. 이것을 3일 천하를 한 '이팔의 난'이라 이른다.

구전된 바에 의하면 이팔이 초동시절에 방개울(울포리) 이진사택에 사동(使童)으로 있었는데 충직하고 영민했던 이팔은 이진사의 귀여움을 받았었다. 노경에 든 이진사가 어느 날 내방한 지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염리에 명당이 있어 그곳에 닭의 알을 묻으면 닭이 해를 치며 울 정도로 영험이 있으니 그곳을 시험하여 보자는 데 합의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엿들은 이팔은 짹째 삶은 닭알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진사는 이팔의 소행은 알 길 없이 생닭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여 일행은 명당자리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진사가 시키는 대로 닭알을 묻으라고 할 때 이팔은 생닭알 대신 삶은 닭알을 묻었으니 닭소리가 날 리가 없다. 허탕을 친 일행은 허전하게 돌아가고 말았다. 영특한 이팔



은 밤에 몰래 그곳을 찾아가 생닭알을 파묻어 보니 과연 닭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이괄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고 자기 부친의 묘소를 그곳에 썼다고 한다.

반란을 일으켜 3일 천하를 누리던 이괄이 죽으니 역적의 부친 묘를 그냥 둘 리 없었다. 묘를 파헤치니 샘으로 통한 물이 나왔고 용이 나왔는데 만일 성족(成足)이 다된 용이었다면 이괄이 3일 천하가 아닌 대권을 잡았을 것이라고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3곳의 설화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는 민초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유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면 왕이 되었을 이괄을 백성들은 상상하고 있다. 이괄이 왕이 되었다면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도래했을 것이란 소망을 담고 있다. 백성들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염원이 이괄의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괄의 이야기는 백성들이 바라는 이상향을 만들어줄 영웅의 출현을 바랬고 이것이 이괄의 이야기로 승화된 것이다.

이괄과 오산

우리가 사는 오산에는 어떤 연유로 이괄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금암동 여계산 인근에 장군마당, 장군바위, 말무덤, 말우물의 지명이 있다. 그리고 세교동에 이괄의 가짜 무덤인 허총(虛塚)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춘추로 제사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모두 없어지고 장군바위 정

도만 남았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영웅을 기다리며 이괄을 이야기 했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피난처로도 이괄을 찾았으리라. 승자가 기록하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야했던 민초들의 가슴속에 이괄은 수백 년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민초들의 절절한 희망과 염원을 담고서, 이괄과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할 영웅은 과연 누구인가?

이 시대가 이괄이 살았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역사여! 그대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go.kr
- 이학주, 〈홍천 이괄 관련 지명과 설화조사연구〉, 《강원민속학》 22집, 2008
- 정운수, 〈홍천의 이괄 전설 전승양상〉, 《강원민속학》 20집, 2006
- 《여주군사》,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
-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01
-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소, 2003
- 《내고향 금암동》, 금암향우회, 2013
- 한명기, 《역사평설 병자호란 1, 2》, 푸른역사, 2013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웅진지식하우스, 2013



오산 鳥山의 지명 유래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오산(鳥山)이라는 지명이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고려 원종 1년(1269년) 때가 처음으로서, 『고려사』에 기록된 “속리대가 을유년에 오산(鳥山)에 퇴둔하였다”는 기록으로 고려왕과 몽골 장수 속리대가 개경과 강화도를 오가면서 몽장 속리대가 주둔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고려 원종 때의 오산(鳥山)이 현재 우리가 사는 오산(鳥山)인지는 확정할 순 없지만, 『조선태종실록』 태종 3년(1403년) 기록에 의하면, 왕이 “수원부 오산(鳥山)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선 적어도 1403년에는 현 오산시(鳥山市)의 오산(鳥山)이라는 지명을 이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오산시(鳥山市)는 오산동(鳥山洞)의 오산시(鳥山市) 전역 확대 지명이다.

오산(鳥山)은 까마귀가 많았고, 200m이하의 구릉이지만 오산시(鳥山市)의 70%가 산으로 구성된 곳이다. 결국 까마귀가 많고 산이 많아 오산(鳥山)이라는 지명으로 지어진 곳이다.

까마귀는 다음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오산(鳥山)의 정체성과도 부합한다. 까마귀와 산의 상징성을 추출하여, 신성(神誠), 충효(忠孝), 지혜(智慧), 용맹(勇猛)의 도시로 상징성을 확정하고 있다. 한때 까마귀가 흉조로 인식되어 조선 후기 이후에 한때는 鰲山(오산), 梧山(오산), 菟汎(토범), 菟峴(토현), 외미, 오미로 불린 적도 있다. 오산(鳥山)은 1941년 10월 1일 수원군 성호면으로 불리다가 1949년 8월 화성군 오산면(鳥山面)이 되었으며, 1960년 1월에 화성군 오산읍(鳥山邑)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 1월 1일에는 오산시(鳥山市)로 승격되고 시당국은 시 승격 당시의 명칭을 오산시(鳥山市)로 명명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수필을 찾습니다

박장원



시를 찾습니다,
시를 찾습니다.
옛날 옛날, 중국 주나라.
골목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높다.
국가에서 임명한 채시관采詩官의 외침이다.
이들이 채집한 민간에서 떠돌아다니던 노랫말을 정리한 것이
바로《시경詩經》의 뼈대이다.
이웃과 즐겁다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누구와 사
랑을 하였다고, 인심이 좋다고, 뿌연 강물이 멋지다고, 하늘이
파랗다고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았다.
민정을 살피는 잣대로도 이용하였지만, 백성의 솔직한 서정과
서사가 가늠되었다. 그 꾸밈없는 인정과 사정이 시에 녹아들었
기에 말이다. 그리고 황하가 대지를 적시듯이, 이 흐름은 5,000
년이 넘게 지금도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수필가는 넘치는데, 수필은 없다.

어느 수필가가 들려준 우스개.
그녀가 동인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
그런데 잠시 길을 잃어 산골짜기 골목 허름한 구멍가게 아주
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이 동네 사는 수필가 누구를 모르시나요.”

“아. 저기 저 집인데 ….”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기요 -. 나도 수필가인데 ….”

대낮에 햇불을 밝혀들고 골목골목 누비며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어느 철학자의 유머. 그는 아직도 지하세계에서 그렇게 돌아다닐 것이다.

중학생이었던 근원 김용준이 현진건의〈빈처〉를 읽고 감명을 받아, 연인처럼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후, 여러 번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수줍어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서 헤어지곤 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가난한 빙허가 뚱뚱한 은행가 체구로 변한 뒤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연락도 끊겼다. 결국 근원은 현진건의 부고를 받고서 전농동 그의 집에 차려진 빈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사람 좋고 글 좋은 작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찾으면 있을 터. 분명 그 어디에, 그 사무사思無邪의 진실한 서정과 서사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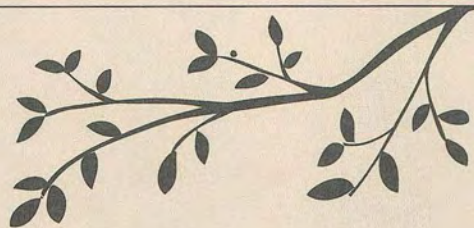
수필을 찾습니다,

수필을 찾습니다,





은유



박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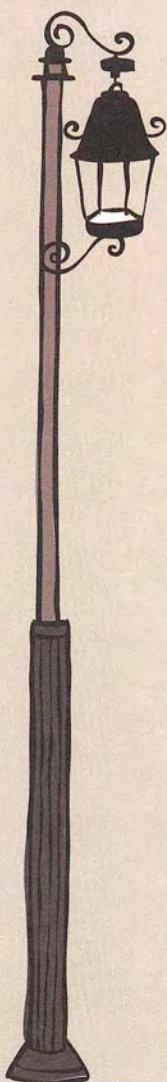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공부를 한다.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고 있다. 여러분은 알겠는고.”
“예 -.”

그러자 그 말귀를 못 알아먹은 제자들이 선뜻 대답한 삼參에게 물었다.
“허, 대단하십니다. 그래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은 충忠과 서恕라 하셨다네 -.”

그런데 뜬금없는지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서(충성과 용서)’ 때문에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공자도 내심 켜졌는지, 학문이 깊은 자공子貢에게 넌지시 물었다.

“얘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모두 기억한다고 여기는고.”
“예. 스승님. 그럼 아닙니까.”
“아니지. 그럼. 나는 그저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이 통하고 있을 뿐이지.”
“...”

공부자가 애써 말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는 무엇인가.
‘하나의 이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알알이 흩어지는 구슬일 뿐이다. 공자의 도는 바로 삶의 절대적 상상 투영에서 빚어진 빛나는 지혜다.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연결 - 전이transference - 시킨다. 줄거리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 가닥만 잡고 있으면 되듯이 말이다. 다만 우리네는



커다란 문이 있는데 너무 커서 그 안에서 헤매고 있다. 줄거리를 알지 못하니
여기저기 들쭉시고 다닐 뿐이다.

문장의 맛을 말끔하게 드러내는 비유법의 은유(隱喻, metaphor)를 뺀 나
머지 수사법은 우수마발이다. 은유는 사실의 상상적 투영이기에, 사물에 대
한 정확한 전이에서야 생명력을 얻는다.

‘시간은 금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은유법의 대명사다.

구조가 또렷하다. 주어와 서술어의 단출한 모습이다. 그런데 어렵다.空空
숨어 있는 그림처럼 산산이 흩어지는 보석처럼, 보일 듯 잡힐 듯 허공을 맴돌
다 사라진다. 그래서 영롱한 은유는 빛나는 구슬이다.

서양의 어느 시인은 말한다.

“시인이 시인인 것은 오직 은유의 영역에서뿐이다.”

박장원

경기 오산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 대학원에서 중국문학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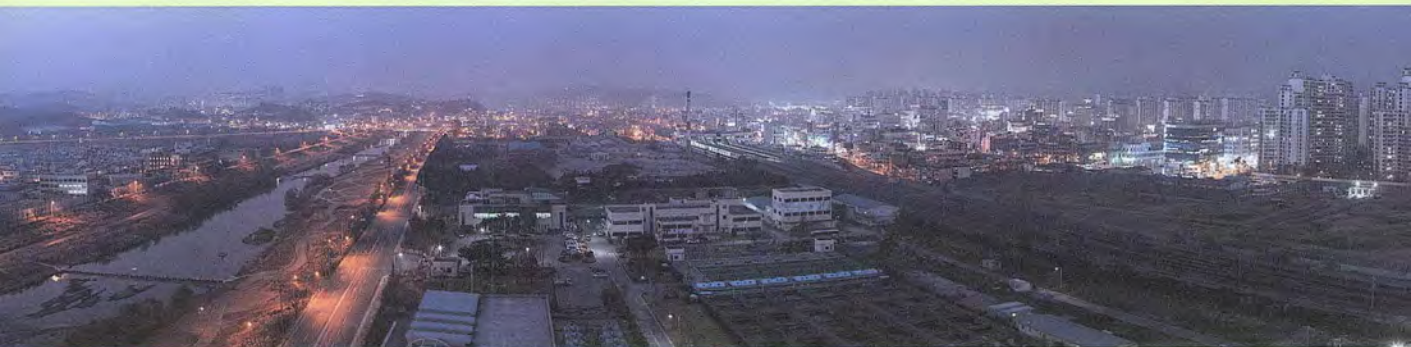
수필가

문학평론가

수필집 『양수리』 · 『말하는 잎새』

평론집 『현대한국수필론』 · 『우물마루』





오산 그리고 오산천

참 많이도 변했다. 오산엔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길이 넓게 뚫리고, 오산천은 예전에 물이 가득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물길이 줄어들고 그 주변 산책로가 생겨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여유로운 휴식 등 여러 가지로 즐기고 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해 나갈 오산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촬영장소_ 에코리움 전망대



오산천의 사람과 풍경

사진가 정영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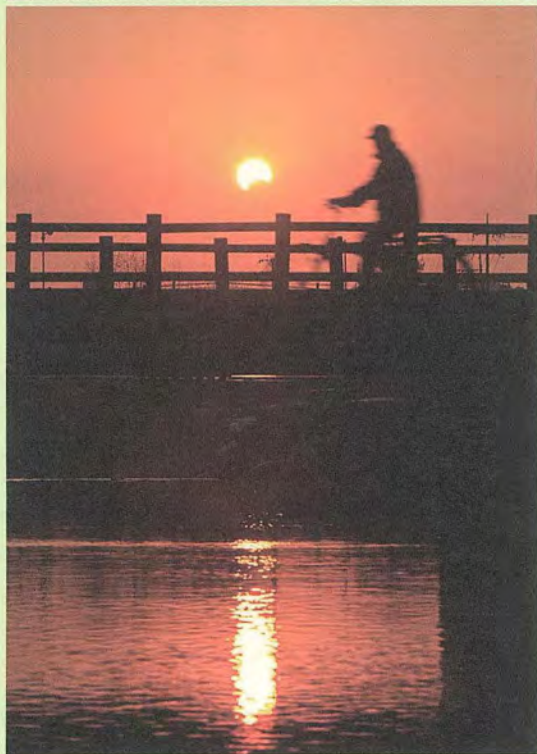
어릴 적 나는 오산천 옆 동네인 지금의 남촌동에 살았다. 그래서인가 자연스레 오산천은 어린 시절 훌륭한 놀이터가 되어 여름이면 수영, 겨울이면 썰매타기와 모래밭에서 야구, 축구 등을 하며 뛰어 놀고, 낚시, 물고기 잡기 등 많은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청동을 거쳐 지금은 갈곳동에 살고 있다. 예전 모습에 비해 지금은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자주 오산천을 찾아 옛 추억이 떠올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오고 있다. 지금부터 5년여 전부터 담아오던 사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0년 1월 2일 오리의 유영

오산천은 현재 다양한 물고기와 수많은 오리들 그리고 왜가리 등 다양한 생태가 살아 숨쉬고 있다. 찬 겨울 늦은 오후 은계대교 위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한가로이 물살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오리 한 마리의 여유로운 모습을 담아보았다.

📷 촬영장소_은계대교 위



2010년 1월 15일 일식

부분 일식이 있던 날 서두른 퇴근 후 곧장 오산천으로 달려 갔다. 전에도 몇 번 노을을 배경으로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담아보았던 곳이다. 마침 겨울이라 남쪽으로 내려간 태양은 달에 가려 한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모습으로 붉은 노을 빛을 내며 서서히 서산으로 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이 찾아오기 전 서둘러 갈 길을 재촉하였다.

📷 촬영장소_오산시민회관 뒤 오산천



2010년 8월 29일 출입금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 오산천은 자주 물이 넘쳐 흘러 사람의 통행을 가로 막았다. 평소의 모습이 순한 양이라면 물이 불어난 오산천은 성난 사자처럼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사람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오산천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출입금지 안전선이 쳐지고 멀리서나마 별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흐르는 물을 지켜보았다. 어린 시절 비가 많이 와 오산천 물이 넘칠 것 같아 고지대인 현재 오산대학교로 피했던 추억도 아른거린다.

📷 촬영장소_오산시민회관 건너편



2010년 9월 12일 물에 잠긴 산책로

비가 그치고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오산천 산책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재개되었다. 완전히 빠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얇은 물길을 건너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과 함께 담아 보았다. 마침 하늘도 서서히 개이며 구름 사이로 간간히 내려오는 밝은 햇살은 오산천을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을 신비롭게 비추었다.

📷 촬영장소_ 오산시민화관 뒤 오산천 산책로



2010년 9월 23일 코스모스와 자전거탄 아이

어느 가을 날, 황금 빛 노을이 오산천 가득 내려오던 날,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 뒤로 한 아이가 힘차게 자전거 타며 오산천을 달렸다. 노을 빛을 배경으로 한 역광 사진은 피사체 주변으로 밝은 테두리를 만들며 늘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나 또한 좋아하지만 많은 사진가들이 빛의 방향 중 이 역광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 촬영장소_ 오산시 환경사업소 앞



2010년 10월 10일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이

오산천에 놓여 있는 많은 징검다리들은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작은 스릴을 느끼며 즐겁게 건널 수 있다. 아마도 아이가 크면 훗날 오산천을 건너다녔던 징검다리에 대해 추억할 듯 하다. 초 가을 서서히 해가 넘어가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역광과 반영을 이용하여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이의 모습을 멀리서 망원렌즈로 담아 보았다.

📷 촬영장소_ 오산종합운동장 뒤 징검다리



2011년 1월 28일 날아라 눈썰매

아마도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계절을 물어보면 여름과 겨울이라고 답할 것 같다.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눈과 얼음을 이용한 놀이를 할 수 있게 때문일 것이다. 눈 내린 겨울의 오산천의 뚝 경사로는 악동들에게 신나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찬 겨울 손이 시릴만도 한데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눈썰매를 잡고 작은 수로에서 빠르게 내려와 잠시 허공을 날아 올랐던 떨어지는 아이들만의 행복한 스릴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촬영장소_ 인도교 아래



2011년 10월 16일 반영

오산천은 누군가에게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고,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비가 와 물이 들어찬 오산천변 농구장은 유리같이 맑은 반영을 만들어 주었다. 마침 휴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담아 보았다.

📷 촬영장소_ 오산시민회관 뒤 농구장



2011년 12월 3일 섬다리

언젠가 오산천에 섬다리가 만들어져 천 가운데 있는 억새가 가득한 섬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잔뜩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늦은 오후, 서쪽 하늘만 살짝 구름이 걷히고 밝은 노을 빛이 물들 때 섬다리로 건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담아 보았다. 날이 흐렸다면, 반대로 그냥 맑은 하늘만 보았다면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이다.

📷 촬영장소_ 맑음터공원 아래



2012년 9월 14일 농구

사진의 느낌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맑거나,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양의 위치에 따라 같은 장소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담을 수 있다. 늦은 오후 한쪽 편에 물이 고여 있는 농구장에서 골대를 향해 하늘로 공을 던지는 학생의 모습을 반영을 이용해 담아 보았다.

📷 촬영장소_ 오산시민회관 뒤 농구장



2012년 11월 20일 다리

비가 그친 다음 날 오전 회사 출근길에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작은 똑딱이 카메라 하나 들고 오산천 산책로를 걸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 안에 비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게 된다. 오산천의 잘 정비된 산책로에 고인 작은 물속에, 오산다리를 건너는 행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 촬영장소_ 오산종합운동장 건너편 산책로



2013년 3월 29일 다리 그림자

오산천을 산책하며 문득 강한 햇살이 비추는 하늘을 바라 보았다. 오산대교의 난간 옆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있어 순간 셔터를 눌렀다. 밝게 비추는 태양 탓에 모든 사물은 그 형체만을 구분할 수 있는 검은 실루엣으로 사진에 담겼다.

📷 촬영장소_ 오산대교 아래



2013년 3월 29일 인도교와 버드나무

매직아워(해가 진 뒤 밤이 찾아오기 전)에 인도교에 불이 켜지면 오산천에 비추는 야경을 담으러 오산천으로 자주 나갔던 적이 있었다. 나의 시선으로는 오산천에서 가장 멋진 조형물이 인도교가 아닐까 싶어서 이기도 하다. 봄이 찾아오고 서서히 새순이 올라오는 버드나무의 배경으로 인도교를 담아 보았다.

📷 촬영장소_ 인도교 아래



2013년 7월 19일 오산천의 생태

어느 장소든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오산천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생명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보통 무심히 지나치는 그 안에 수 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고 관심을 갖게 되면 사진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빛을 이용한 생명의 신비를 담아내는 접사 분야 또한 큰 매력이 있다. 날개 가득 노을 빛을 머금고 표범 나비가 꽃에 앉아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 받고 있었다.

📷 촬영장소_ 오산시환경사업소 앞



2014년 1월 22일 어르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오후 시간, 다리가 불편하신 한 어르신이 보행보조차를 끌고 오산천을 건너 가신다. 오산시장에서 물건을 사셨는지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한걸음 한걸음 조심조심 느릿느릿 걷다가 힘들면 잠시 섰다가 다시 걸으며 그렇게 오산천을 힘겹게 건너가셨다.

📷 촬영장소_ 오산시민화관 뒷편



2014년 2월 6일 다리를 건너며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오산천은 또 한번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다. 파란 하늘빛과 노란 노을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진 오산천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흘러가던 물은 잔잔함이 다시 요동을 치며, 마치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 듯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 촬영장소_ 오산6동



2014년 2월 28일 징검다리를 건너며

홀로 징검다리를 건너는 남자, 왠지 그 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세상이라는 넓은 공간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들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으며 징검다리를 건너듯 조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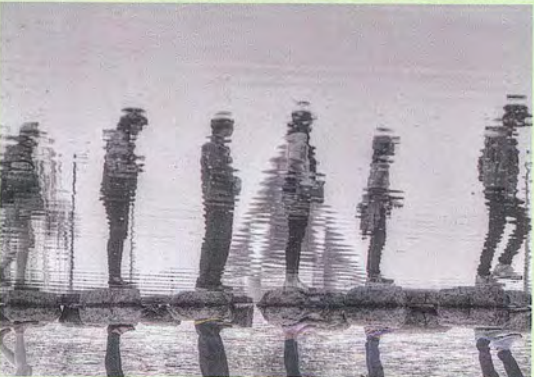
📷 촬영장소_ 인도교



2014년 3월 30일 물가의 아이

낮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는 돌을 주워 물로 던진다. 돌이 물이 빠지며 만들어 내는 동그라미가 무척이나 신기할 것이다. 예전에 나 또한친구들과 함께 누가 멀리 던지는지 물이 가득 고인 오산천을 향해 돌던지기 놀이를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 촬영장소_ 종합운동장 건너편



2014년 3월 30일 징검다리

오산천변에서 큰 행사 있던 날,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건넌다. 앞에 어른이나, 아이가 있을 경우 이렇듯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다. 급해도 어쩔 수 없다. 기다리는 수밖에...

📷 촬영장소_ 종합운동장 건너편



2014년 오산시 정월대보름 큰잔치

'2014년 오산시정월대보름큰잔치' 가
2014년 2월 14일 오후 2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암들(판) 웨딩의 전당
뒤편에서 치러졌다.

글_축제 총괄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유종대 사진_사진가 정영욱





이번 행사도 예년과 같이 민족고유 명절인 대보름을 맞이하여 21만 오산시민은 물론, 이웃 지자체 시민들도 참여하여 행복을 기원하고 지역사회 화합의 장을 견고히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이 주관한 2만 여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한 이 행사는 수도권 최대의 대보름 행사로 성장하였으며,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고, 오산 5일장인 오색시장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통놀이 등 대보름 풍속 체험을 통한 고유문화를 계승하여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민속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행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행사는 1부 2부로 나누어 치러졌는데, 1부에서는 연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돌리기, 굴렁쇠굴리기, 소원문쓰기 등 민속놀이와 풍물놀이가 열기를 고조시키고는 가운데 남사당패 공연이 펼쳐졌는데 접시돌리기, 줄타기, 장구놀이, 무등놀이를 신명나게 벌이며 축제를 이끌었다. 물론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먹거리와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대보름명절의 특성도 잘 살리는 행사였다.

2부에서는 중앙대국악공연단의 국악 공연이 시연되었으며, 기원문 낭독과 대보름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오산시민의 큰 꿈과 희망을 안고 활활 높은 하늘로 솟아올랐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깡통돌리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보름 한가위를 만끽하는 추억을 새겼다. 이날 2014년 오산시정월대보름큰잔치를 위해 일부 지역의 교통이 일시적으로 부분 통제되었다.

2014년 오산시정월대보름큰잔치에 큰 힘을 보태었던 오산시민들과 단체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의 도움에 큰 감사를 드리며, 행사 후 행사 평가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얻어낸 점은 행사를 총괄한 저의 입장으로는 무척 기쁘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2014년 오산시 정월 대보름 큰잔치 일정표

구분		시간	진행 계획	참여단체(부서)
1부 행사	동 대항/직원 척 사 대 회 시민척사대회 제기차기대회 팔씨름대회	14:00~17:00	· 1~3위 시상(트로피)	자치행정과(1) 자치행정과(2) 장수과(크리스토퍼) 오산문화원 오산문화원
	민속음식 체 험	14:00~17:00	· 떡메치기 (2개소) · 부럼 나눠주기 · 옛 치기 · 뽕튀기 · 솜사탕 등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 오색시장연합회
	먹 거 리 장터운영	14:00~21:00	· 유료(메뉴별 적정가 판매) · 메뉴(어묵, 떡볶이, 국밥, 빈대떡, 두부김치, 도토리묵 등)	오색시장/음식업조합 새마을부녀회 집수리봉사단
	민속놀이 체험마당	14:00~17:00	· 연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 돌리기, 굴렁쇠굴리기, 소원문쓰기 · 만들기(복주머니, 미니명석, 복조리, 지끈공 예, 새끼꼬기, pp를 이용한 곤충만들기 등)	자원봉사센터 의제21실천 전래놀이팀
	지신밟기 거리행진	16:10~16:50	· 풍물놀이 3팀, 시민등 200여명 · 오산역→구)대원동주민센터→중앙동주민 센터→서울병원→행사장	시민추진위
	민속공연 마 당	14:00~17:30	· 풍물 놀이 · 널 뛰 기 공연 · 남사당패 공연 (접시돌리기, 줄타기, 장구놀 이, 무등놀이 등) · 국악 공연 · 극단 우금치 공연 등	예술단 오산 국 풍 안성 남사당패 국악협회 오산지부 극단 우금치
2부 행사	식전공연	17:30~18:00	· 중앙대 국악공연	중앙대 국악공연단
	기 념 식	18:00~19:00	· 개 회 · 인사말(시장,국회의원,시의장,문화원장) · 기원문 낭독 · 달집태우기(지신밟기) · 폐 회	시민추진위
	강통돌리기	19:00 ~21:00	· 시민 자율참여(운암들)	오산문화원/오산시



대한민국의 **중심!** 이벤트 **최강!**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

인터뷰, 글 / 시인 **배명숙**

이벤트는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며 국가전략 산업이다. 세계 3대 이벤트로 손꼽히는 올림픽과 엑스포, 월드컵과 같은 메가이벤트를 비롯하여 결혼이나 생일과 같은 개인이벤트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는 매우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기획력, 조직력, 예술적 감성, 적극적인 활동력, 긍정적인 성격을 갖춘 이벤트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는 이러한

이벤트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2005년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벌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학과로서 교원의 90%이상이 이벤트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내 이벤트교육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는 이벤트기획 및 연출, 진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벤트 교육을 통하여 국내 이벤트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벤트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벤트에 관한 이론과 기획실무 및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 이벤트연출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기술습득에 이르기까지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이벤트전문인을 양성하여 공연이벤트를 비롯한 SP이벤트, 지역축제, 레크리에이션, 파티, 웨딩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연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이벤트기획사를 비롯해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영상프로덕션, 기업의 마



케팅 및 홍보부서, 음향회사, 조명회사, 이벤트MC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벤트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벤트개론, 마케팅론, 이벤트경영관리, SP사례연구, PR론, 지역축제론, 웨딩이벤트, 기업이벤트, 테마파크운영론, 레크리에이션, 이벤트문화탐방 그리고 이벤트 준비단계에서 중요한 이벤트기획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문화의 이해, 이벤트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발상법, 이벤트조사방법, 기획서작성법, 구성대본작성법, 이벤트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이벤트전산실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이벤트 실행단계에서 중요한 이벤트연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벤트연출론, 이벤트음향, 이벤트조명, 이벤트영상, 특수효과, 파티테크레이션, 이벤트시스템디자인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이벤트제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벤트현장중심형 실습과목으로 이벤트프로젝트, 공연제작실습, 파티실무,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교내에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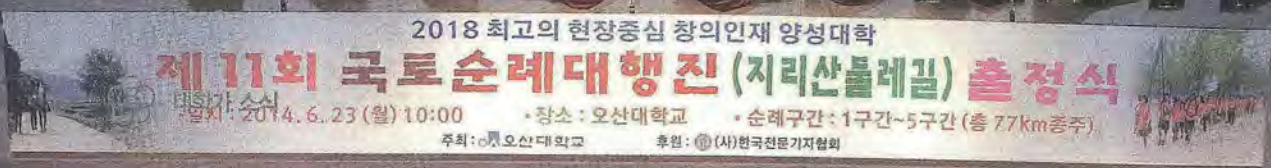
고 있다.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기획실습실, 이벤트제작실습실, 세미나실,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으며 무대를 비롯해 조명, 음향, 영상, 특수효과 기자재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현장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현재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의 학과장은 이완복 교수가 맡고 있다.

이완복 교수는 15년 넘게 이벤트 현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연출했던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이벤트축제경영과 문화산업경영을 전공하여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완복 교수는 2008년 오산대학교에 부임하여 학생들과 함께 지역과 연계한 현장중심형 실무수업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봉사 일환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끼리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오산다문화페스티벌, 오산시민을 위한 '도심 속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오산대학교 학생들의 제11회 국토순례대행진(지리산둘레길) 출정식

오산대학교, 제11회 국토순례대행진 (지리산둘레길) 출정

오산문화원 행정실장 / 이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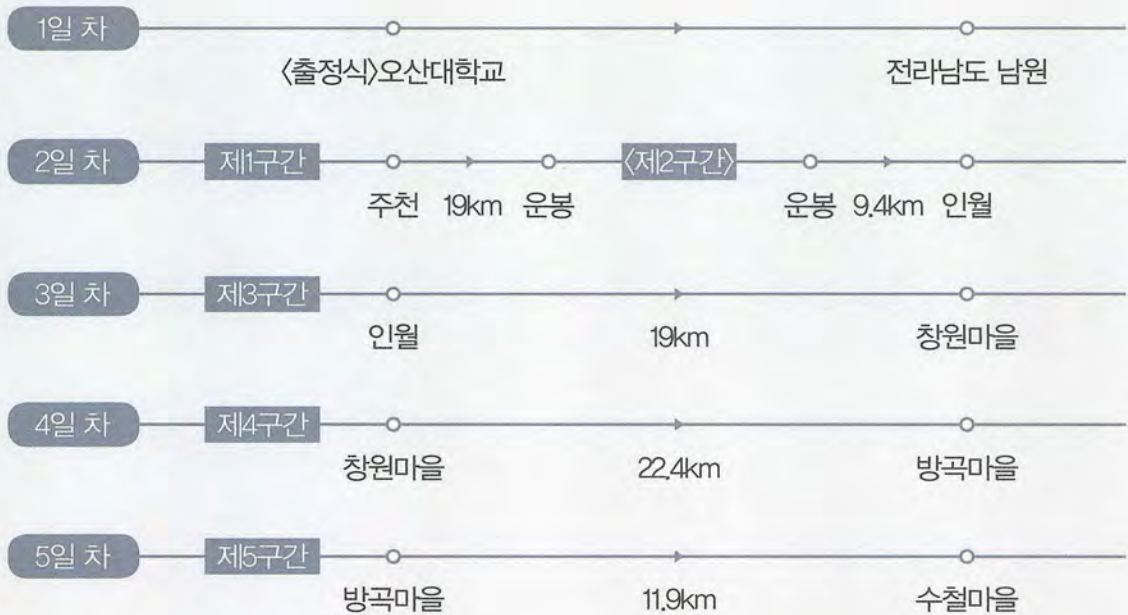
오산대학교는 2014년 6월 23일 제11회국토순례단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종합정보관 대회의장에서 서범석총장의 축사와 출정보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행진에는 교직원 및 재학생 총 85명이 참가하고,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후원을 했다.

이날 오산대학교 서범석 총장은 출정식에서 “대학의 교육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최고의 현장중심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 도약을 추구하는 최고의 대학임을 전국적으로 한 번 더 알리고 국가안보를 통한 통일 조국을 염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오산대학교 국토순례단 여정은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리산둘레길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총77Km를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과 지리산둘레길 자연생태환경 체험의 코스로 하여서 국토순례 행사에 들어갔다.

오산대학교 국토순례단은 6월 23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일정을 소화하고 종주기 념식과 해단식을 5구간 종착지인 경상남도 수철마을에서 27일 진행했다는데, 국토순례 일정동안 날씨가 고르지 못했지만, 참석한 교직원과 학생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완주 했고, 완주 메달을 한 사람씩 수여하면서 개인 기념촬영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번코스는



총77Km를 걸으며 진행됐다.

국토순례에 참가한 오산대학교 학생은 “지리산둘레길 자연생태환경 체험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언젠가는 제1구간부터 제18구간까지 모두 완주하는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토순례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문기자협회 관계자는 “오산대학교 국토순례단은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11회 동안 무사완주를 진행해 왔으며, 이런 작은 움직임이 국가안보와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와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하는 큰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약의 새로운 변신 가격부담 없는 보험한약, 한의원에 있습니다!

오산사랑채음한의원장 / 공병희

“보험한약” 있습니다

종종 한의원에 전화가 걸려와서는 '보험이 되는 한약이 있다면서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이런 질문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보험한약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보험 급여가 되는 한약은 1987년, 26개의 처방으로 처음 선을 보인 이후 현재는 56개 처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감기(상기도 감염), 비염, 소화불량, 설사, 생리전증후군, 우울 및 불안과 같이 흔히 발생하는 질환의 처방들이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한약의 경우 함유된 성분이 탕약(첩약)보다 적고, 캡슐, 정제의 개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증상에 따라 보험한약으로 치료되기 충분한 질환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의 종류와 복용량은 한의사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의원에는 환자의 주머니 부담을 줄이며 효과를 보이는 보험한약이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제도

우리나라와 그 주변 나라들에서 한의학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던 역동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쌓아온 수많은 처방은 현대 의학으로는 부족한 부분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보여줍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동양의 것을 모두 버리고, 서양의 문물로 모두 바꾸자고 했던 일본이지만, 현재는 오히려 160여 가지의 한약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을 제외하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도쿄에서만 한 달에 100만 반대 서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대학 병원 내에 한

방과가 개설되고 보험한약을 넘어서, 한·양방 병용치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국내와 유사하게 한의학과 의학이 공존하고 있는 이원화 체계이지만 보험한약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입니다. 대만 보험 정책의 특이성으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등재가 쉽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한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대만에서 2003-2008년에 원발성 월경곤란증(월경통)으로 한의원과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비교하자면 전체 생리통 환자 중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53.4%였습니다. 이외에도 대만의 성인 천식환자의 85%, 폐암환자의 20-30%,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37%에서 한약을 단독 또는 양약과 함께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서 보험한약 처방의 종류와 비중이 적지만 일본과 대만의 예를 보았을 때 보험한약은 커다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많은 질환들이 한약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신의 질환을 조절하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당장의 한국 보험한약의 처방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인 것은 아쉽지만 최근 보험 한약 처방의 종류를 늘리고 처방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또한 제도도 개선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이 되는 약(한약) 한의원에도 있습니다!



타자기 이야기

유근형

얼마 전 개봉되었던 프랑스 영화 '사랑은 타이핑 중'이라는 조금은 촌스러운 영화가 나를 옛날 타자기와 함께했던 시절을 돌아보게 하며 잠시나마 추억을 되새기게 한 적이 있다. 개봉되지 얼마 되지 않아 슬그머니 간판을 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나에게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가는 영화였다.

화려했던 타자기 시대의 생활상과 이제는 골동품이 되어버린 각종 타자기들을 정말 오랜만에 다양하게 볼 수 있었고 그 타자기를 두고 벌이는 숨 막히는 타이핑 대회가 기분 좋은 긴장감과 함께 흥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타자기와의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후



100여 년 전에 나온 타자기의 색상과 디자인의 정교함에 아직도 감탄하는 필자



나는 가족들과 TV유료채널을 통해 몇 번 더 그 영화를 보았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진 많은 물건 중에 한때는 근대의 상징이었으며 도시의 상징이며, 인텔리 여성의 상징이었던 물건이 있다. 바로 수동 타자기이다. 이제는 박물관 전시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19세기에 발명된 타자기는 컴퓨터로 대체되기까지 100년 이상을 글 쓰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기계였다.

글 쓰는 도구가 글 쓰는 사람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몇몇 저술가는 타자기와 독특한 관계를 맺기도 한 것 같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제임스 조이스, 조지 오웰, 그리고 최근에는 폴 오스터까지...

그들의 옆에는 늘 타자기가 있었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편두통과 시력 저하에 맞서려고 타자기를 썼다고 한다.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타자기 회사인 레밍턴사에서 제공해준 타자기로 집필하기도 하였다. 특히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강의 추억>은 타자기로 집필된 최초의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하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또한 타자기 애호가였으며 그의 타자기는 쿠바 아바나에 위치한 헤밍웨이 박물관 책상에 아직도 놓여있다고 한다.

최초의 타자기는 1714년 영국의 헨리밀이 발명했지만, 상용화는 그로부터 150여년 뒤에 이뤄졌다. 1868년 미국 인쇄 기술자 겸 신문 편집인 크리스토퍼 숄츠가 잉크리본을 이용한 지금의 타자기를 만들었고 그 특허를 사들인 총기회사 레밍턴사에서 1874년부터 대량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실질적인 최초의 타자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업가들의 문서수요가 급증할수록 타자기 수요도 늘어났



다. 수많은 발명가들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베스트셀러 <생물의 발견>을 저술한 린위탕(林語堂)도 한자타자기 개발에 청춘을 바쳐 특허까지 얻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한글 타자기는 1914년 재미동포 이원익이 영문 타자기에 한글 활자를 붙여 고안한 게 처음이다. 그 후 몇몇 발명가들을 거쳐 1949년 안과의사 공병우가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하여 대중화한 것이 우리나라 타자기의 대중화의 효시가 되었다.

타자기의 발명과 대중화로 말미암아 힘 좋은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혁명적으로 넓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화이트칼라라는 말도 타자기가 발명된 직후 나오게 된 단어이다. 타자기는 이렇듯 20세기 문화를 풍미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타자기가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으로 그 화려했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우리나라 타자기 생산업체인 크로바와 마라톤이 1995년 문 닫았고, 인도 뭄바이에 있던 지구상의 마지막 타자기공장까지 문을 닫았다는 외신을 보면서 나는



1960년대 초반 생산된 세계 최초의 포터블 타자기 올리베티 레테라 32. 한정판으로 생산된 구찌 가방이 수집가들을 열광케 한다



묘한 아련함에 잠시 사로잡혔었다. 타자기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인연들이 생각 난 것이다.

첫 번째 운명적인 인연은 오산으로 이사 온 후 선친께서 타자 학원을 설립하면서 부터다. 선친께서는 다른 사업도 겸하고 계셔서 학원은 자연스럽게 내가 운영하게 되었다. 그것이 나와 타자기의 첫 만남이다. 이것이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니 벌써 4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아득한 옛날 일이 되었지만 나에게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각인되어있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내가 이제껏 교육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후에 알았지만 우리 학원이 영광스럽게도 오산, 화성 최초의 관인 학원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4.19가 일어나 데모인파에 휩쓸리다 겨우 부모님을 찾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그 해, 선친께서는 그때도 이미 서울에서 영문타자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타이피스트를 양성하셨다. 어찌 보면 나와 타자기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지도 모른다.

하여간 나는 수원의 어느 타자학원에서 속성으로 한글타자



에토르 소트사스(Ettore Sottsass) 디자인의 명작이자 뉴욕현대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는 1969년 출시된 최후의 콜렉터급 타자기 올리베르 발렌타인 빨간색 플라스틱 케이스가 강렬하다



1980년대 생산된 국산타자기 미라클, 클로버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그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나는 하교 후 저녁 시간에는 상업학교 여고생들을 가르치며 군 입대 전까지 바쁜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 당시는 국산 타자기가 생산되지 않던 시절이라 우람한 크기의 미국 타자기에 한글 활자를 붙여 사용하던 시절이다. 학생들 지도는 물론 웬만한 고장도 직접 수리해야하는 타자기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 사무직 여직원은 타자가 필수였으므로 학원은 매우 번창하였다. 서두에 설명한 프랑스 영화 이야기도 그 시절을 연상하게 되는 영화라 더욱 애착이 갔던 영화다.

타자기와 또 다른 인연은 군입대후 필연적으로 타자병으로 선발되어 후방부대인 상무대에서 3년여의 복무기간을 타자기와 동거동락하며 애뜻한 정을 쌓아가며 지낸 것이다. 그 시절은 타자병이 최고의 인기병과인지라 군입대전 많은 대학생들이 타자학원을 찾던 시기였다. 그러니 타자강사였던 나의 존재는 나를 대단했던 것이다. 수많은 교육생들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며 틈틈이 여군들의 타자업무를

지도하고 도와주며 비교적 여유 있는 군 생활을 했다. 군 제대 후 잠시 타자 학원을 운영하였지만, 80년대로 들어서며, 세계는 컴퓨터가 대세인 시대로 접어들었고, 결국은 타자학원을 정리하면서 타자기와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다.

그렇게 타자기를 잊고 산지 30여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그 육중하면서 미련스럽기까지 했던 타자기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언어우드, 레밍턴, 로얄, 올림푸스, 스미스 코로나 등 그 당시는 못 느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애타하면서 예술적 가치까지 있는 그 녀석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때 학원을 정리하면서 몇 대 갖고 있을 걸 하는 후회와 함께...

그날이후 그 당시에 기억나는 타자기들을 구하기 위해 서울 황학동 중고시장을 비롯해 앤틱샵, 인터넷 경매 등을 통해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물건을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 산업화의 물결 따라 컴퓨터에 밀려난 타자기들은 포항 제철 용광로 속으로 사라져버렸



나의 집무실에 진열되어 있는 수집된 타자기들, 이제는 나의 분신이다



기 때문이다. 어느 벼룩시장의 창고를 뒤적이다 원하는 놈을 발견 했을 때의 심정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옛 식구들을 찾다보니 이제는 식구들이 제법 모였다. 수 집품을 보며 100여 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고 튼튼하며 잘생기게 만들었는지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사무기기를 떠나 예술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자태를 연일감탄하고 있으니 미처도 많이 미친것 같다.

이제 타자기는 골동품이 되어간다. 하지만 난 여전히 타자기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할 것이다. 그 푹푹한 잉크 냄새와 한자 한자 글쇠를 찍을 때마다 탁-탁- 하고 나는 경쾌한 리듬은 구닥다리가 되어가는 내가 구닥다리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소리이니까...

탁- 탁- 타다닥-

유근형

서울예술대학교 졸업.
한국방송대 유아교육과 졸업
꽃동네미술학원, 꽃동네유치원 설립 (1980).
현재 근혜유치원, 오르다유치원 이사장



내 나 이 가 어 때 서

수필가 / 공란식

더위의 시작. 사는 동안 맛 볼 사계의 순환, 아침 베란다 창 너머로 긴 햇살 자리를 마련 한다. 오늘은 비교적 느긋하게 아침을 맞이했다. 도대체 뭘 하기에 그리 바쁘냐는 지인의 안부. 한시도 집에 있을 여유조차 없음에 묻는 말 일제다.

나는 농사꾼의 아낙으로 40여년을 살다 작년 이맘 때 남편과 사별했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정리하고 임시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도심에 거주 하니 이동이 편리해질까? 분명 예전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루가 더 바빠졌다. 요즘 난 글 모임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인들 만난다. 올해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과정(AMP)에 입학해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강의 들으러 수원에 간다.

이제 칠십을 바라보니 뭔가 시작하기도 늦은 때 같지만,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랫말에도 있듯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하다. 남은 시간은 촌각을 다투지만 오늘 하루도 열정을 품에 안고 산다. 못하는 것 보다 안하는 게으름으로 단절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할까.

연예인 협회에서 주최하는 가요 교실에 다니다 보니 가끔 무대에 설 때가 있다. 노래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 큰 재능은 아니지만 남을 위한 즐거움은 내게는 큰 행복이다. 오늘 하루도 나이 따위는 잊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하다. 항상 곁에 두는 것은 나를 위한 행복 찾기입니다.

공란식

경기도 오산 출생.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AMP과정 이수중.

1996년,〈문예한국〉수필 신인상 데뷔

(현) 오산시문화회 회장

『짧은 이야기 긴 여운』외 수필집 3권 출간

오산시 상반기 문화예술, 자체 점점의 시간과 성숙의 장으로 활용되었나?

오산 오색시장 100주년과

오산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이 주는 문화예술 기상도

글, 사진 / 시인 이숙영

2014년 상반기는 오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6.4지방 선거에 의해 문화 전반에 관한 기상도를 함께 그릴 수밖에 없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터진 이후 전 국민의 애도 분위기에 따라 각종 행사나 공연이 전면 취소되거나 보류되었다. 오산의 상반기 문화 양상도 호들갑스러운 행사 대신, 노란 리본으로 예의를 갖추며 애도와 위로의 자세를 취했다.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도 이러한 엄숙한 분위기를 감수하면서 이번 기회에 오산시 문화예술에 관해 자체 점점의 시간과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올해 오산시는 몇 가지를 문화코드 테마로 삼았다. 오산 오색시장 100주년과 오산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문구를 주요 문화행사 부제목으로 붙였다. 다른 또 하나는 세교지역에 개관했거나 개관예정중인 주요

공공시설 설립에 관한 선포이다. 세교지역에 꿈두레도서관 개관에 이어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신장동주민센터 등 시민들이 주요 사용하며 삶의 욕구충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위한 기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화예술 인프라가 없어 동탄, 화성지역을 이용했던 세교주민들에게는 반길만한 일이다. 또 한 축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별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벽화그리기를 통해 마을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담장을 벽화로 단장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골목이 속속 등장했다. 남촌동과 성호초 후문 담장도 마을의 이미지를 벽화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지역의 기업과 세교고 학생들도 함께 벽화그리기 사업에 동참해 피부로 느끼는 이색마을 문화를 만들고 있다.

먼저 오산예술인총연합회가 봄의 시작과 함께 제2회 봄누리축제를 열었다. 오산 오색시



장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대통령 표창과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 전국에서는 2위, 경기도에서는 1위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개장 100주년을 표방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오산문화예술회관 및 오산 오색시장, 오산천 일원에서 열렸다.

문화공장 오산은 상반기동안 ‘오산작업장展’과 ‘뜻밖의 풍경: Unexpected Scenes展’, 그리고 오산작가들의 전시인 ‘Artists in OSAN 2014’전, ‘상상공장-살아있는미술관’展을 열었다. 개관이후 여섯 번째 프로그램인 ‘콩알콩알’체험전은 그동안 전시되었던 체험전과 같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었다. 최근에는 재활용 체험전시 ‘반쪽이의 상상력 미술관전’이 전 국민이 관심을 모았던 ‘반쪽이’ 작가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의 산실을 잉태하는 공간으로 태동되었다. 청소년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청소년문화를 생산해내는 일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화공장오산의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올해 3가지 미술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해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던 결과물을 7월에 전시할 예정에 있으며, 오산문화재단 상주단체로 선정된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의 활동도 눈여겨볼만하다.

이상에서 오산의 상반기 벌였던 문화관련 행사를 논해 보았고 다음에서는 세부적인 문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봄 누리 예술 축제와 100주년 기념하는 오색시장



3월 28일과 29일 무대에 오른 이만희 작가의 ‘늙은 자전거’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돌 밖에 없는 장돌뱅이 할아버지 강만과 손자 풍도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웃음을 선사하지만 웃음 뒤에 들어있는 메시지 때문에 공연장을 나오면서 여운을 남게 했다.

‘늙은 자전거’라는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를 오산의 관객과 호흡하기 위해 오산연극지부(지부장 이화정)가 봄누리 축제기간에 올린 연극으로 이를 동안 전석 매진을 보이면서 오산지역연극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오산연극지부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오산시민에게 연극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오산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3월 22일(토) 10시에는 오산천 인도교에서 “오피천 아트페스티벌”이 열려 오산천 인도교가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변모했다.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예술작품을 친숙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 오산미협이 ‘미술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지역 주민의 문화 소통 창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장을 끝내고 오산예술인연합회의 오산봄누리축제 전시공간으로 변모했다.

오색시장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 KBS전국 노래자랑이 오산천 일대에서 열려 시각장애인인 김연희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01



03



02

01_ 봄누리축제 기간 동안 오산연극협회의 '늙은 자전거' 공연
오산문화재단 상주단체인 코리안체임버오케스트라의 5월 공연

02_KBS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연희씨 03_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의 오산문화재단 상주단체로서 활약



오산문화재단 상주단체로 선정된 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 공연이 있었다.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4회에 걸쳐 영어오페라 '관객이 함께 부르는 굴뚝 청소부 쌤'을 '오페라를 사랑한 아이들'이란 타이틀로 선보이며 '오페라의 진가를 알려주려는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 무대였다'는 평을 들었다.

여객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예를 갖추며 차분하게 10년 전 오산문화예술 회관에 개관기념 행사 때 무대에 섰던 아이들

과 후배들이 함께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찾으며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게 하는 공연이었다. 이은순 사단법인 경기예술진흥원 대표는 "클래식은 인내와 노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오늘의 무대는 10년 동안 함께 해온 교육의 성과이다. 오페라와 뮤지컬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 속에 음악교육의 가치가 있다"며 "아이들이 꿈을 향해 방황할 때 긴 호흡으로 지켜봐준 학부형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로 대신했다. '오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오산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일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공연이었다.



‘문화공장오산’의 괄목할만한 전시



문화공장오산은 2014년 처음으로 준비한 ‘오산작업장 展’에서는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이 미술품으로 변신한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그룹 플라잉시티는 주변에 버려지는 재료들을 모아 다양한 형태로 이어 붙여 보이는 작품이다. 각종 일회용품들과 과소비로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버려지는 재료들인 천과 고무줄 등으로 엮여져 천정에 매달려 있는 재활용된 생활 폐기물들은 관람객들의 손을 거쳐 쓰레기 넝쿨을 만들었다. ‘오산작업장 展’을 위해 작가는 특별히 작품을 완성하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두어 관람객의 손에 의해 완성되도록 기획한 작품이다. 제목 또한 ‘잘 자라는 넝쿨’로 관람객 자신들이 가져온 생활폐기물이나 미술관에 비치된 폐기물들을 이용해 넝쿨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했다.

‘오산작업장 展’에 이어 두 번째인 ‘뜻밖의 풍경; Unexpected Scenes 展’은 3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의 가장 오래된 장르로 자리 잡은 ‘풍경’을 현대적 풍경의 의미와 그 다양성을 재고해 보고자 마련했다. ‘풍경’은 자연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시대와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반영한 결과물로, 오늘날의 현대미술에서도 많은 작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문화공장오산의 봄 기획전, ‘뜻밖의 풍경’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풍경’이라는 주제를 다루

고 있는 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났다. 전시에 참여한 김동기, 김종구, 노주환, 박철호, 송대섭, 심영철, 이성실, 임근우, 한석현 작가는 ‘풍경’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풍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시각화하여 관람객에게 제시했다. 풍경은 자연의 단순한 재현과 모방을 넘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 자연과 인공, 현실과 가상 등 넓은 범주에서 풍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는 9명의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관람객은 풍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문화공장오산의 상반기 마지막 전시로 2014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상공장-살아있는미술관” 展을 선보였다. 오산시민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가정의 달 특별 기획전으로 미술관 야외에 설치한 컨테이너 공간에도 미술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구성은 크게 실내, 실외의 테마로 구분하여 전시하게 된다. 실내 2층 전시 공간에서는 오산의 삶속에서 배어 나오는 현대미술의 창의성 작품들이 즐거운 개념미술(평면, 부조, 입체설치)작품으로 구성, 신비와 상상력이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친환경적인 전시로 꾸며져 살아있는 오산을 담아냈다. 작품들은 현대산업의 발달과 함께 나온 폐 기자재를 이용한 작품들로 평면, 부조, 설치 등으로 조형화한 작품들과 현대 미술로 판타지아를 만들어 낸 작품들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역동성을 더해주는 작품들이다. 또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작품



04

04_ 오산지역작가전에 이성실 작가의 여백

들로 어린이에게는 상상하는 탐구력을 고양 시키고 어른들에게는 첨단과학으로 변화되어 폐기물로 사라지는 기자재들의 재생예술을 체험하게 되는 신문화 신개념의 현대미술을 만나는 자리였다.

오산지역 작가전



오산작가들의 'Artists in OSAN 2014'전이 오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발굴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문화공장오산 4층 전시실에서 이성실작가의 '천국-사이' 개인전을 열었다. 고정심, 송경숙 작가에 이어 두 번째 전시다.

이성실 작가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고민거리가 오산에 와서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2000년부터 이어온 '천국'에 대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인 천국을 현실에서 마주치는 상반된 상황들을 '사이' 혹은 '틈새'에서 찾는다.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공간으로 그에게 다가간다. 그는 이번에 오산의 풍경을 몸소 체득하고, 오산에서 느껴지는 도시적 풍경과 자연적 풍경의 아이러니한 조화, 그 조화 안에 존재하는 틈새를 포착한 21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이성실 작가에 이어 그노시스(gnosis)를 발견하는 오산출신 김수철 작가의 개인전이 문화공장오산 4층에서 4월 19일부터 27



일까지 열렸다. 창작의 고뇌를 드러내는 그의 작품 ‘그노시스(구원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말)’는 우리가 바라는 피안의 세계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서양화가 김수철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어두운 문을 두드리는 행위다”라고 말한다. ‘그노시스’를 통해 흑연과 그을음이란 물질이 그림이 된다는 것에 놀라고 모든 색을 감싸며 단연 일등 색으로 등극한 검은색의 신비한 출현에 두 번째로 놀란다. 전시장에서 고고하게 피어오르는 김 작가의 작품 ‘그노시스’가 동공 안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림에 대한 가치기준을 해체하게 만든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김수철 작가의 그림은 평면이면서 또 다른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움직임에 따라 정지성과 운동성을 지닌 자운동체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격이다. 4월초 인사동 갤러리수에서 초대 개인전을 마치고 연이어 개최하는 김수철 작가의 개인전은 오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오산출신 작가들을 지원하는 문화공장오산의 프로젝트이다.

김 작가는 “내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수단으로 검은색을 이용 한다”며 “오산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 개관이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지역의 선후배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개인전 오프닝 인사말을 전했다. 김수철 작가의 생각이 만들어진 검은 색채 미학 안으로 우리의 정신이 들락날락거리며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전시회

다. 꿈틀대는 우주의 기운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황홀한 점점의 경지가 들어있다.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한 안수진 에듀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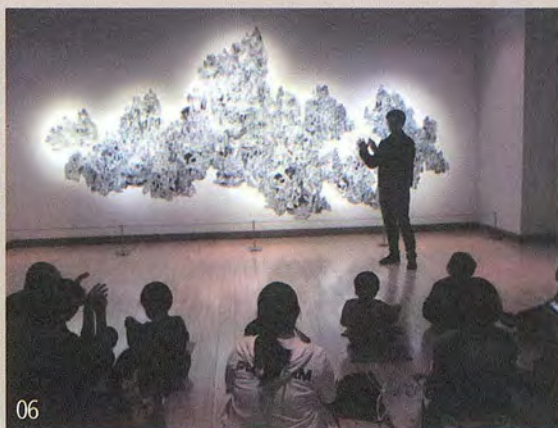
‘응답하라, 지구별’전시회장의 ‘탱크’ 작품 앞에서 발길을 멈추는 이가 있었다. 오산유엔초 전 기념관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전시회를 둘러보다 그곳에 전시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쑥쑥 프로젝트’를 기획한 안수진 작가는 결혼 직후 신혼집에서 다솜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가르쳤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좀 더 넓은 장소를 옮긴 것이 지금의 안수진 에듀아트이다. 그곳에서 오산시 6개 지역아동센터와 원일초 희망반 아이들 152명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한 끝에 문화공장오산과 오산중앙도서관에서 각각 미술작품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미술작품 전시회는 ‘2014 쑥쑥 프로젝트-응답하라, 지구별: 땅·바다·하늘을 품은 우리들’이란 주제로 지구별에 전해주는 이야기 5백여 점의 작품이다. 미술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미술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안수진 에듀아트에서 주최하고 ‘세상을 소통하는 美’,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다. 안수진 대표는 “아



05



06

05_ 오산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한 안수진 에듀아트전 06_ 김동기 작가

이들은 모두 새싹처럼 소중한 ‘싹’이라고 생각하고 싹이 새순을 돋고 자라나 듯 ‘쑥쑥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해서 조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며 “10여 년 동안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번에 경계를 나누지 않고 함께 하는 전시를 통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작가와의 대화에서 얻어낸 작품의 진실



문화공장오산에서 ‘뜻밖의 풍경 ; Unexpected Scenes 展’을 선보이고 있는 중에 지난 4월 13일, ‘바위섬’의 김동기 작가와 ‘Super-natural’ 한석현 작가와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바위섬’은 ‘실크 스크린’기법에다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작품의 섬세함과 특

징을 잘 살려낸 작품으로 작가가 “그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다니면서 바라보았던 집들에 대한 흔적의 표상을 표현했다”고 했다. 김 작가는 ‘바위섬’ 안에 자신의 외로움과 아쉬움이 거대한 바위로 응축된 미술작품을 통해 시사하는 메시지를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 것으로 확장하는 물음을 시민들에게 던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건물이나 풍경, 그리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갈 때 만나는 것들에게 작가는 말을 걸어 작품 ‘바위섬’안에 펼쳐놓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무게로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린 일상에다 작가는 섬세하게 포착해 ‘바위’의 딱딱함에 서정적 이미지를 입혀 ‘바위섬’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어 ‘Super-natural’의 한석현 작가는 “어릴 적부터 두 눈에 꼭 들어왔던 초록색의 의미가 친환경적이고 순수한 자연 본연의 표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점점 초록색을 보는 시선이 남들하고 달랐다”면서 작품을 하게



된 배경을 털어놓았다. 초록색이 주는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어느덧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 그 이상의 가치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한석현 작가가 작품을 하게 된 동기였다. 한 작가는 ‘Super-natural’에서 “초록색을 앞세웠다고 해서 환경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양한 초록형태의 공산품이나 기타 물품들을 통해 산업화의 부정적인 요소를 표식시키는 것 보다는 그것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공존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초록색 비닐 속에 담긴 과자 한 봉지,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장을 볼 수 있도록 묵묵하게 양손에 들리는 장바구니까지 우리가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는 산업화의 상징들 또한 환경을 등지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균형감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작가는 ‘Super-natural’에서 보여준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도시화된 골목에서 느끼는 향수와 함께 산업화 사회에서 생명을 공유하는 도시민들의 인위적인 삶의 스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편 ‘상상공장 - 살아있는 미술관’의 12명의 참여 작가 중 신비한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탄성을 일으키는 작품 ‘decode-encode 가변설치 부분 (반사유리, 은경 LED 책, MDF)’을 설치한 김성호 작가를 만났다.

‘decode-encode 가변설치 부분’은 책을 통해 인간은 불안을 해소하려하지만 책이 쌓일수록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기만 하는

지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지식이 만들어낸 허상에 대결하고자 인간은 매번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은 해소와 축적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책 속에는 지식이 생산해내는 관념의 잔해에 짓눌려버리는 현대인들의 피곤함이 들어있다. 그는 관념의 벽으로 표상되는 책에서 그 너머의 세계를 새로운 프라임을 통해 지식의 모순으로 드러난 고민을 작품에 투영했다.

김성호 작가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각자 맡고 있는 일 때문인지, 환경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관심이 갔어요. 이번 작품 활동은 이것들을 확인하려는 작업이에요. 지금의 역사를 이뤄온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죠. 관심 갖고 둘러보니 책이 강력한 힘으로 말하고 있었고 책장은 그것을 정리, 종합하는 상징적인 것이면서 반복적으로 쌓여 문화를 만드는 장치지요”라며 이번 ‘상상공장 - 살아있는 미술관’작품을 설명했다. 김 작가는 아직까지 작품을 통해 독자들을 선동하는 것보다 작품을 놓고 고민하는 정도로 독자들을 만난다. 그는 누구나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고 작품 해석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다시 말해 작품의 절충점을 찾는데 빠르고 주도적이지 않지만 끈질기고 전위적인 태도를 취하며 작품 활동에 임한다. 그 안에서 김 작가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내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풀어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07_ 반쪽이의 상상력전에서 교과서에 실린 '로드킬'작품

록 도시마다 지정학적으로 이미 알려진 메인에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 주변적인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시대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깊이 더 들어가는 것을 모아 작품의 소재로 삼으려고 해요” 라고 전했다.

‘반쪽이의 상상력 미술관전’에서 발견한 것들



문화공장 오산은 지난 5월 초부터 6월 29일까지 재활용 체험전시 ‘반쪽이의 상상력 미술관전’을 열었다. 작가는 솔뚜껑으로 만든 거북이, 소화기로 만든 팽귄, 전구로 만든 파리 등 흔히 쓰레기로 치부해버리는 폐물을 이용해

다양한 조형예술작품 200여점을 전시했다.

시사만평가로 이름이 알려진 최정현씨는 자신의 육아기를 담은 ‘반쪽이의 육아일기’를 시작으로 영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물과 일상의 도구를 비교한 전시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고물을 모으기 시작해 고물과 자연물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냈다. 팔알로 만든 ‘개미떼’ 숟가락과 포크를 구부려 합친 ‘플라밍고’와 같은 동물들도 있고 ‘뿔어- 뽕’으로 지붕을 얹은 ‘국회의사당’, 타이어를 잘라 만든 ‘로드킬’과 같이 풍자와 해학이 담긴 작품들도 있다.

최정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창의력과 자연의 소중함을 키울 수 있



는 체험전시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을 설치작품을 통해 흥미롭게 접하며 그 안에 작가의 현실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반쪽이 최정현 작가에게 예술작품의 정의는 친숙한 것을 말한다. 이미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거나 인연이 끝난 것들에게 새로운 혼을 입혀 예술작품으로 진화시켜준다. 최 작가의 작품에서 현대미술을 접하고 받는 것과 다른 충격을 받는 이유이다. 그의 충격적인 작품은 우리생활과 모두 관련이 있다.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걸친 모든 사회상의 반영이 그의 작품 주제와 내용을 관통하고 우리들과 만난다. 작품을 보면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것도 너무 익숙한 것을 가지고 평소에 생각지 못한 것들을 예술이라는 장르에 진입시켜버린 최정현 작가의 탁월한 예술혼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시절 겪은 광주의 아픔을 포함한 작가의 시대적 통한이 들어있는 시사만화가로 보낸 25년을 지나 지금의 예술작품 활동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입체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게 한다.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시대적 아픔과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아름다운 저항이라고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챌수록 아프다. 작가의 의도가 독자에게 백프로 전달되지 않는다 해도 함께하는 교집합과 즐거움은 예술의 영역이다. 그래서 시사만평으로 독자들과 시대적 아픔을 함께 연대하

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역할을 마치고 이제 재활용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통해 입체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 ‘반쪽이의 상상력 미술관전’ 오산 유치를 반긴다. ‘반쪽이의 상상력 미술관전’은 하나의 작품 안에 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정확히 들어 있으면서 타인을 향한 물음과 대답까지 종결하는 작가의 완벽함이 들어있다. 그는 작품의 의도가 벗어나지 않고 흠잡을 때 없을 만큼의 완성도 있는 작품만 만든다. 그래서 이미 힘이 없어진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작품으로 변신한다. 즉 최정현 작가의 혼을 입고 내부로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무엇인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최 작가가 ‘상상력 미술관전’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최 작가의 ‘아이디어 발상법 100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멜레온 슬리퍼’에서처럼 오랫동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찰을 하며 미세한 것이 올라 올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 것을 알아차리려면 항상 메모를 해야 해요. 모든 창작은 애정과 관심이에요. 100% 집중이고요. 메모를 미리 해두기 때문에 다음단계가 보이고 다른 것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요”라며 사회현상 모두 관심과 애정을 받고 예술작품으로 태어난다고 했다. 반쪽이의 작품은 초·중 국어교과서와 미술교과서에도 수록되어있다.

벽화거리로 마을문화 만들기



성호초등학교 후문 담벼락에 벽화가 완성



08_ 성호초등학교 후문에 피어난 벽화마을이야기의 김주원 작가

되어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변신했다. 김주원 화가는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성호초등학교 담장과 주택가 담장에 지나버린 추억의 오산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아 벽화를 그렸다.

성호 초 후문 거리는 학교 담벼락에 학생들의 발자국 소리가 담장을 넘는 다는 이미지를 살려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추억이 생 각나는 거리로 만들었다. 또 벽화 밑에 있는 죽 은 나무 등걸에 색을 입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앉아 사진 찍는 포토존을 만들어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주민들은 화사하게 그려진 벽화를 보면서 “쓰레기나 버리는 학교 담벼 락 때문에 지저분했는데 새롭게 벽화가 그려지

니 오색시장에 볼거리가 생겼다”며 “벽화에 그려진 옛날 어린 시절의 놀이와 생활모습이 생 각나 몇 번을 나와서 지켜봤다”고 흐뭇해했다.

김주원 화가는 오산의 버려진 고목이나 추 억이 남아있는 서랑동, 부산동마을, 또는 오 색시장의 싸전거리의 모습을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간직하고자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스케치를 한다. 그는 12년째 평창과 오산을 오가며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림 이외에 도 장승을 만들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노 동의 가치를 예술의 동력으로 끌어올리고 있 다. 주변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벽화 를 보면서 아쉬움을 전하는 김화가는 “벽화는 단순히 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 테마



가 있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을 때 의미가 더 해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느껴야 제대로 된 벽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과 세교고 학생들도 벽화만들기 사업에 나섰다. 이마트오산점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마트 오산점 백윤득 점장은 “앞으로도 단순한 경제적지원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사업을 통해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펼쳐진 지역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벽화로 인해 마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벽화가 있는 우리 마을이 남촌동의 명소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마트 오산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 재료비 등 600만원을 후원했다. 세교고 벽화동아리 학생들도 성산초등학교 주변과 남촌동 일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벽화그리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세교지역에 부는 공공시설의 균형



오산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세교지구 내 오산세교종합복지관이 드디어 첫 삽을 뜨며 공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구도심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시설이 편중된 반면 신도시인 세교지구 북부권역에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취약한 복지인프라 구축과 북부권역에 대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지난 2012년 11월 27일 세교지구 지역개발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은 금암동 512번지 일원에 338억원(국도비 55억)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면적 11,881㎡, 연면적 7,378㎡(지상 5,580㎡/지하 1,797㎡)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노인복지관,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 목욕탕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수영강습 전면 실시와 직장운동부 수영팀 운영·수영 엘리트반 출범 등으로 수영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 관심이 증대되는 반면 기존 오산스포츠센터 시설만으로는 수영장 수요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세교종합복지관 내 수영장이 들어서므로써 공공체육시설 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내 체육발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년 10월경 완공될 오산세교종합복지관은 오산 북부권 주민들의 문화·체육 복지 향상은 물론 오산시 남부권으로 치중된 지역사회복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오산시는 내년 5월 세교우체국 옆 금암동 495-2 일대에 신장동 주민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신장동복합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공사에 시작한 신장동복합청사는 부지 2,998.2㎡에 연면적 2,819㎡, 지상 3층과 지하 1층의 규모로 건축비 56억 7백만원에 토지매입비 42억2

천7백만원이 투입 총 98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장동복합청사 건물 1층에는 사회복지와 주민등록 및 각종 제증명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청사 2층과 3층에는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과 각종 시민교육 등을 진행하게 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또 오산시는 4월 12일 시민들에게 문화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오산 꿈두레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오산시의 6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세교지구 세교파출소 뒤편에 위치해 지하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8,342㎡, 연면적 5,223㎡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꿈두레도서관에서는 자료실·문화강좌실·야외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과 독서캠핑장·자연학습장 등 체험시설로 구성되며, 문화강좌·평생교육·초청강의·공연장·발표회·전시회 등으로 운영한다.

오산문화재단 개관 2주년, 시민들과의 공감에 남은 과제



오는 7월이면 오산문화재단 개관2주년이 다. 오산문화재단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남부 지역의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수도권에서 떨어져 문화예술에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만족할만한 문화아이템의 축적을 가져오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꾀했다. 문

화공장오산이 오산시립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과 동시에 한 축에서는 문화공장오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주력해야한다.

오산지역작가의 발굴은 물론 오산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유함으로서 삶의 여유와 고단함이 해소되도록 만들어줘야만 오산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유에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취지도 오산문화재단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들인 영화, 공연예술, 미술관, 조선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도서관, 스포츠 등을 무료·할인 관람 및 야간 개방을 실시하는데 오산시립미술관인 문화공장오산도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개장 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 이어 오산시 하반기 문화예술 기상은 오산의 대표 축제인 독산성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오산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끌고 가는 양상보다는 시민들이 문화적 토양을 넓혀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시민광장 | 송경은

오산아줌마의 히말라야 탐험기

숲 해설가 / 송경은

코사인쿤다 호수 앞에서, 필자

네팔, 히말라야, 랑탕, 체르고리, 코사인쿤다... 나와는 관계가 없던 이 낱말들이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황홀하게 내 가슴에 남는 단어가 되었다. 경기도쭈마탐험대 3기 대원 송정은은 지난 5개월 동안 내게 부여된 땀내 나는 이름이었다.

숲해설가로서 자연을 가까이 하며 활동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등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산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초보 산사람이 된 나에게 우연히 아니면 운명적으로 히말라야가 다가왔다. 경기도등산연합회에서는 쭈마탐험대라는 이름 아래 히말라야를 2번째 탐험해오고 있었다. 각 시군에서 지원자를 선발하고 이때 모여진 45명 정도가 체력테스트를 받고 면접을 거쳐 25명 쭈마탐험대 3기가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 내게는 설레임과 두려움과 행운이 섞여 오산시 대표 1인의 쭈마 탐험대가 되었다.

히말라야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 들 수 있는데 신이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자기 위안을 삼으며 10회의 국내산행 훈련을 받았다. 군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특수부대에 가면 이럴 것이다. 훈련마다 10~15kg의 배낭을 메고 얼굴에 소금이 버석거릴 때까지,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의 훈련을 받았다. 지리산, 감악산, 청광 종주까지 힘든 훈련의 여정은 대장님의 말씀대로 히말라야를 등반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01_코사인 쿤다 가는 길 02_체르고리 정상에서 대원, 셀파와 함께 03_비누박다스쿨에서 모두 함께

이 모든 훈련 과정을 거치고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네팔 히말라야 랑탕, 체르고리 4984km를 거쳐 코사인 쿤다 4380km를 등정했다. 매일 하루에 7 ~ 9시간의 강행군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 날씨는 매우 뜨거운 봄날씨 정도이지만 산행으로 인해 땀은 비 오듯 하고, 땅은 먼지가 매우 많으며 돌길 이 대부분이다. 눈을 들면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 대자연의 풍광은 거대하고 아름답지만 내딛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줌마탐험대에는 등산 인구의 저변확대와 여성 등산 지도자를 키워낸다는 취지 아래 모이게 된 경기도 각 시군의 산을 좋아하는 25명의 아줌마들, 대장님 3명, 네팔 청년들로 구성된 셀파, 쿡, 포터의 수가 우리만큼 많았다. 쿡들은 한국 음식을 맛깔나게 만들어 주었으

며, 아침마다 방문을 두드리는 모닝콜 겸 티타임~하는 소리와 차 한 잔의 룸서비스는 히말라야의 고생스런 여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왕비대접이었다. 포터들은 우리의 15일 동안의 짐이 담긴 카고백을 두 개씩 묶어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이마에 끈을 두르고 등으로 메는 방식) 짐을 옮기는데, 비쩍 마른 몸으로 우리처럼 땀을 비 오듯 하는 그들과 함께 고생하며, 행동식을 나누어 먹으며 미소 지었던 기억이 난다. 셀파는 그들 중에 포터를 거쳐서 하게 되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나 할까? 무거운 짐도 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길 안내를 한다. 그들 중에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셀파인 밍마와 소남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의 하루는 밍마~, 소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항상 미소 짓

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그들이 보고 싶어진다. 히말라야 랑탕의 체르고리 4984m 를 등정하던 날 그렇게도 걱정하던 고산증으로 인해 대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다. 고산증은 고도가 높고 기압이 낮으므로 생기는 신체 이상인데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하고 탈수가 오게도 만드는 힘든 일이었다. 산행 초보이고 체력도 저조한 내게 히말라야는 고산증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 감사함으로 인해 체르고리 4984m의 정상에 서게 되었다. 처음 산행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까마득히 보이던 설산이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졌다.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산은 참 정직하구나!”

내가 내 발로 꼭꼭 딛은 만큼만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런 정직함이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다. 정상에서의 순간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단체 사진을 찍고 개인 사진을 찍고 조별사진을 찍고 하산 시작.

고산증은 모두에게 몰려와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몸은 무겁고, 서둘러 하산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반쯤 내려갔을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노곤해지는 순간이 왔다. 고도에 맞춰 몸이 정상을 찾아가는 순간이라고 했다. 노곤한, 기분 좋은 느낌, 우리는 히말라야의 기를 받는 것이라고 명명했다. 다음 코스는 코사인 쿤다 4380m. 체르고리는 4984m로 높고, 가는 여정도 힘들

었다면 코사인 쿤다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히말라야 중턱 어디쯤에 이렇게 큰 호수가 숨어있다니!”

코사인 쿤다는 호수의 이름이고, 호수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거대하고 물이 너무나 맑으며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곳은 힌두교도의 순례의 길에 있으며 이 호수에서 몸을 씻는 종교적 행사의 장소이기도 하다. 코사인 쿤다는 오래도록 내 마음 속에 남아있을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힘들 때마다 그 호수에 비친 하늘이며 설산이며 담대함을 꺼내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12일의 등반 여정을 마치고, 민간 외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봉사활동으로 바누바다 스쿨을 방문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생인데 교복을 입었고, 생화 목걸이를 환영한다며 걸어주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전달했으며 그 아이들은 감사의 의미로 연습한 춤을 보여주었다. 모습과 꾸밈새는 달라도 아이들의 로망은 걸그룹인 듯하다. 걸그룹의 춤을 따라하는 듯한 춤사위는 그들 또래의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네팔, 히말라야, 랑탕, 체르고리, 코사인 쿤다.

내게 온 히말라야의 경험은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게 산을 알게 해주었고 산의 정직함을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값지다. 히말라야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아련한 추억이다.



세교에서 피어나는 행복한 연기의 향을 느끼면서

금암동 금암마을 5단지 / 최은숙

일주일 내내 머리 아픈 일들은 왜 그리 많은지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질 않는다. 새벽에 일어나 무조건 편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나왔다. 아파트 뒤에 있는 나를 항상 기다려주는 이 공간 고인돌공원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촉촉한 새벽의 공기가 위로해주는 소리가 들린다. 서울에서 살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나무의 냄새와 흙이 주는 이 힘은 무엇일까? 맘이 편해지면서 묵혔던 뇌 속에 담겨진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다. 강아지를 안고 걷는 사람. 잠시나마 한가한 틈을 타서 애완견의 목을 풀어놓은 채로 한적하게 산책을 즐기시는 예쁜 할머니.

공원 군데마다 놓인 운동기구에 다리 운동을 하염없이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나름 그들의 힘든 시간을 이 시간에 풀어놓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광경이다. 답답한 맘을 공원 가운데 흐르는 냇물에 실려 보내며 조금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잘 다듬어진 오솔길로 걸어본다.

세교로 이사 온지 5년이 되는 요즘.

이제는 나무도 잔디도 안정을 잡고 곳곳에 정신없이 피어나는 야생화와 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쁠 수가 있을까하는 감탄이 절로 난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다가서면 내가 가진 고민들이 우습게 여겨질 때도 있다. 40대 중반에 택한 이 동네에서 아이들과 계속 살고 싶은 맘을 되새겨 본다.

오랜만에 쉬는 날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꿈두레도서관을 가봤다. 버스타고 지나갈 때는 전혀 몰랐던 웅장함과 강남을 연상케 하는 실내인테리어 벌써부터 유치원에서는 몇 팀이 견학을 와서 아이들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도서관이 없어서 그동안 아쉬웠던 점이 힐링되는 순간이다.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 분의 할머니는 초콜릿빛 직원 옷을 입으시고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도서관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피를 주문하는 나도, 진한 아메리카노를 뽑고 계시는 할머니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3층에 있는 하늘정원을 가보니 카페베네를 지향하던 내가 갑자기 어리석었다는 순간이다. 고급스런 나무소재로 만들어진 탁자와 나무들. 세교중심상가 쪽으로 보이는 정경이 지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만큼 충분한 공간이다. 얼마 전에 알게 된 동생과 함께 하늘공원에서 지나간 일들을 나누며 세교에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해주니 기쁘다며 다른 친구들 만날 때도 여기서 만나야겠다고 한다. 좋은 사람을 보고 싶을 때 같이 하고 싶은 공간을 하나라도 알고 있다는 건 값비싼 재산이 하나 늘어나는 것과 같다. 책 열람실을 들어가 보니 벽면 쪽으로는 화이트 쇼파가 우아하게 자리 잡고 다른 면은 스탠드 의자가 단정하게 있어서 바로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넉넉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이 정말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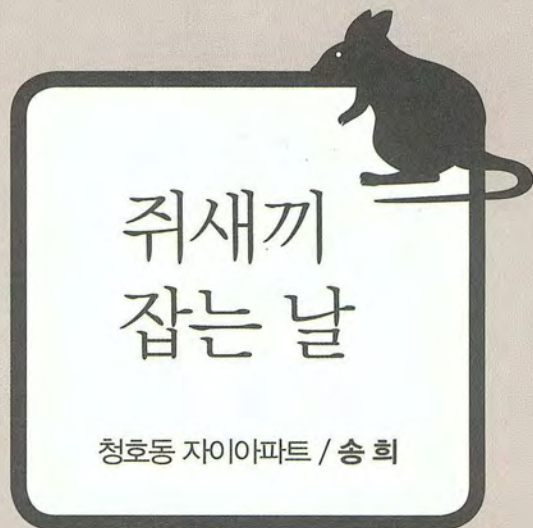
카페1층 입구에는 야외테이블이 깔끔하게 있어서 봄바람에 친구들과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 뒤편을 돌아서서 독서캠핑이란 안내판을 따라 구경하니 재밌게 생긴 독서캠핑공간이 있어서 호기심에 알아보니 가족들과 독서캠핑을 하면서 하루를 일박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1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당첨되면 1년에 2회 사용할 수 있는 캠핑 공간 벌써부터 6월1일이 기다려진다. 중3딸인 수아와 7살인 수현이에게 이보다 더 멋진 캠핑을 누릴 수 있을까싶다. 캠핑조건이 독서 감상문을 써야한다는 제안도 재밌는 아이디어다. 책을 읽을 때 마음가짐이 틀려질 것이다. 부모님과 일박을 하면서 밤도 직접해먹으면서 책을 읽으며 밤을 보내는 일이 동화속의 가족처럼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다른 해외여행을 하는 일도 가치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소중한 일들 아이들에게는 비싼 여행보다 재밌고 친구들에게 더 자랑하고 싶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태어난 지 7년 된 아들의 생일

저녁에 고인돌공원에 나가면 정자가 곳곳에 있어서 간단한 도시락을 들고 가면 어떤 고급 리조트보다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다. 일하고 어깨가 무거워진 남편은 조용한 공원에서 저녁공기를 맡으며 마시는 캔맥주가 그렇게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한다. 오염되지 않은 지금 내가 사는 세교. 더없이 유유자적하게 누릴 수 있는 여기서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손주, 손녀를 봐주면서 공원에서 나들이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음 하는 상상을 한다. 상상을 현실로 옮기려면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세교에서 깨끗하게 살아야하는 맘을 가져본다. 그동안 지쳤던 도시의 생활, 세상에 찌들었던 삶을 세교에서 치유 받고 있는 40대 중반의 즐거운 향기. 다음 주에는 물향기수목원에서 따뜻한 햇살을 누리고 싶은 하루다.





조용하다. 적막함과 고요함이 함께 묻어있다. 시계는 2시 13분에 멈춰져있다. 창문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이 말장게 푸른 걸 보니 아직은 오전 시간대인 것 같다. 뜯겨진 벽지사이로 시멘트가 살짝 보였다. 생쥐의 고귀한 빛깔과 닮아있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시멘트에 금이 생겼다. 벌어진 틈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젖어있었다. 지금은 물기가 다 말랐지만, 얼핏 보면 누군가 오줌을 놓고 간 모양새처럼 지저분해졌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현기증까지 났다. 그런데 나는 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일까. 아까부터 나는 끈끈한 바닥에 누워 천장만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천장은 비교적으로 깨끗한 편이었는데, 군데군데 거미줄이 보였고, 그 거미줄 사이

로 먼지가 쌓여있었다. 쥐새끼들의 흔적으로 보이는 노란 젖물들이 천장 곳곳에 말라 있었다. 어미 쥐가 그랬는지, 새끼 쥐가 그랬는지 조그만 구멍과 우물처럼 커다란 구멍들이 보였다.

자기들의 놀이터인 마냥 쥐새끼들은 어두운 밤이 되면 저 구멍사이를 두고 뛰어다닌다. 뛰어다니는 것 까진 괜찮았다. 걸어 다닌다 해도 짹짹 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었다. 문제는 저들이 실수로 발을 헛디뎈 구멍사이로 떨어질까 봐 불안했다. 실제로 쥐새끼들이 떨어진 적은 없었으나, 가끔, 작고 검은 똥들이 한 알씩, 한 알씩 떨어질 때는 있었다. 마치, 천장위에서 떨어지는 한약재를 받아먹듯이 툭! 하고 떨어진다. 아침이 되면, 나는 저들의 메말라있는 똥들을



“

“난 오늘 운 좋게. 달콤한 꿀을 먹었어.” “
그곳이 어디야.” “별집.”

”

치워야 했다. 쥐새끼는 보고만 있어도 치가 떨린다. 웬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새끼다. 쥐 새끼들을 잡기 위해 어제 동네 구멍가게에서 끈끈이를 사왔다. 끈끈이를 짹 펼쳐서 구석진 곳에 몇 개 펼쳐놓았는데, 계속 접히는 바람에 양쪽 가장자리에 책 두 권을 살짝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곳엔 그들의 통처럼 보이는 파리 몇 마리만 군데군데 붙어있었다. 손가락 네 마디를 천천히 올려 보니, 하얀 누에고치의 명주실이 물엿에 달라붙은 것처럼 끈적거렸다. 쥐새끼들을 잡으려던 끈끈이에 붙어버린 재수가 없는 파리가 된 기분이다. 나는 정말 재수가 없는 파리인 것일까.

힘없이 눈을 감고 오후를 맞이했다.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누군가 숨이불을 덮어주고 갔다. 숨이불은 내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답답했다. 누구지? 엄마인가? 엄마는 지금쯤 일하고 있을 시간이다. 아빠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모른다. 누구지?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지? 답답하다. 치워버리고 싶다. 몸을 움직여본다. 끈끈이에 달라붙어서 그런지 몸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는 죽은 것일까. 눈을 깜박거리려 본다. 아직

살아있다. 파리들이 날아다니더니, 소리 없이 내 얼굴위로 착륙했다.(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말이다) 파리들은 내 입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코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콧구멍이 간지럽다. 파리들이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에헤, 헤헤 에이취! 나는 재채기를 했다. 그런데도 파리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한다. 파리들이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걱정이 된다. 다행히, 파리들이 주춤거리면서 나온다. (무슨 대단한 일을 치르고 나온 것 마냥 모습이 당당하다) 아랫입술을 둥글게 모아 입김으로 쫓아 내려 했지만, 파리들은 도망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두 마리의 파리는 내 콧구멍과 입술 사이(인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난 오늘 운 좋게. 달콤한 꿀을 먹었어.”
“그곳이 어디야.”
“별집.”

파리들이 웃는다. 둘이 서로 연인 관계라도 되는 것처럼 사이가 좋아보였다.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에 두 마리의 파리는 천장위로 날아갔다. 그 곳에서도 파리들은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누군가가 와줘서 너무 기뻐다. 날 좀



“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누군가는, 숨이불로 내 몸 전체를 덮어버리고는 도망가 버렸다. 미치겠다. 온 몸이 끈적거리서 움직일 수가 없다. 누군가의 방문 닫히는 소리에 천장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쥐새끼들이 놀랐는지 달그락 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구멍을 쳐다본다. 어미 쥐가 동그랗게 파 놓은 구멍, 지금 그 구멍을 사이에 두고 쥐새끼들이 풍당풍당 뛰어다닌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듯이 쥐새끼 한 마리가 푹!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쥐새끼는 몸뚱이에 제법 살집이 올라있었다. 살집이 올라있던 쥐새끼는 방향을 잃고 허둥거린다. 구석으로 몸을 피하던 살집 오른 쥐새끼는 모퉁이에 펼쳐놓았던 끈끈이에 달라붙었다. 뒤늦게 알아차린 살집 오른 쥐새끼는 탈출을 시도한다. 찌익-찍! 찍! 거리며 한 발을 떼어 내더니, 다른 한 발도 금 새 떼어냈다. 끈끈이 위에서 탈출한 쥐새끼는 발톱을 치켜세우며, 나에게 달려왔다. 쥐새끼는 온몸에 끈끈이 투성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달려오던 쥐새끼가 이제는 살금살금 내 쪽으로 걸어온다. 천천히 다가오니 더욱 무서웠

다. 살집 오른 쥐새끼가 가까이에 올수록 쥐새끼들만의 그런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이 썩은 냄새 같기도 했다. 살집 오른 쥐새끼는 짹짹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쥐새끼의 눈을 쳐다보았다. 쥐새끼의 눈을 자세히 바라보니, 해바라기 씨앗과 닮아있었다. 내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시계는 여전히 2시 13분에 멈춰져있었고, 살집 오른 쥐새끼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살집 오른 쥐새끼는 나와서 거리를 조금 둔 채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살집 오른 쥐새끼는 내 몸뚱이를 끈끈한 바닥에서 탈출시켜주었다. 나는 몸을 여러 번 뒤집고 나서야 겨우 두 발로 바닥에 설 수 있었다. 나는 살집 오른 쥐새끼가 했던 것처럼 발톱을 치켜세우고 살집 오른 쥐새끼를 따라 천장위로 올라갔다. 어미 쥐가 파놓은 구멍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른 쥐새끼들이 숨이불에 덮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재빨리 어두운 곳으로 도망쳤다.



‘오산’

내가 성장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 안신영

대학교에 들어간 지 벌써 일 년이 흘렀다. 작년 초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나는 한 동안 설레어있었다. 그래서 난 새내기로서 으레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OT에 갖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다. 첫 날, 학과 교수님들 앞에서 짧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나는 좀 다르게 교수님들에게 비취지고 싶었다. 한 마디로 고교시절부터 그래왔듯이 튀고 싶었다. 내 첫마디는 이러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브랜드 대상 1위, 청렴도시 1위, 평균나이 30.7세의 젊은 도시인 오산에서 막 올라온 안신영입니다!”

첫 대면에, 그것도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내가 우리 지역에 대해 당차게 말하며 소개했던 이유는 내가 오산에 많은 애착과 소속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산을 알리고 싶다는 동기도 있었다.

내가 학교에 합격한 전형은 각 지역에서 2명씩만 추천 가능한 ‘지역핵심 인재전형’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오산의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행히 교수님들은 나의

독특하고도 재미있는 소개 덕분에 말로만 듣던 오산에 대해 더 알게 되셨다며 나를 인상 깊게 봐주셨다. 나는 오산이 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작은 도시이지만, 과거에 비해 지금의 오산을 보며 그 성장에 감탄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할 거라는 믿음에 기대가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자란 이 곳을 자랑하고 싶다.

오산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며 나는 오랫동안 이 곳에서 살아왔다. ‘오산’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루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오산이 나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교육브랜드 대상’, ‘청렴도 1위’, ‘젊은 도시’ 등 우리 지역을 수식할 수 있는 말들은 참 많다. 하지만 수치와 더불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떠나서 나는 오산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천진난만했던 학창시절,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담소도 나누고,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도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오산시가 많은 도움을 주어서 너무 감사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와 교육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청소년들은 타인의 강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하고 싶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성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에 행복해할 수 있는 나라를 꿈에 그리며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기에 그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며 정

치인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보통 정치에 대해 견해를 물을 때, 대부분이 부정부패나 불신을 화두로 던진다. 나는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나라 정부를 바꾸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사회적 복지를 누리는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일조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인을 꿈꾸며 학생회장이 되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복 제작과 더불어 학생자치법정을 만드는 등 학생대표로 열심히 활동했었던 것 같다. 학교를 대표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관내 학생회연합회(MAKER)에서 시장님과 의 간담회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플래시몹을 직접 기획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대표활동을 했었다.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나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고교시절의 꿈은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어떻게 활동하였던 것들이 지금의 나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같다. 지금은 대학생인 내가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며 초심을 지켜나가고 싶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애향장학금 덕분에 큰 무리 없이 대학교에 잘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왔다. 그 결과, 성적장학금도 타는 영광도 거머쥐게 되었다. '성공'이란 내게 있어 만족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나의 꿈을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고 특별히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기대가 되기에 꿈을 꾸는 것이 즐겁다. 개인마다 삶의 만족을 얻는 곳과 그 방법은 가지각색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험해 온 활동들을 통해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기에 나는 앞으로 더욱 꿈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품으며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만약 오산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살아왔다면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값진 활동들을 하며 성숙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나를 선배로서 오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후배들에게 진로상담을 해주는 내가 되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다. 내 인생의 비전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서히 영향력을 미쳐나가고 싶다. 부족하지만 내가 더욱 배울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젊음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할 뿐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을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나갈 것이다. 나를 성장시킨 이 배움터 오산에서 나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오산을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진정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지고 싶다.

오산문화원 가족



오산문화원

고문	조석구, 이기룡, 오근택
원장	임명재
부원장	유원복, 이종석
감사	윤병화, 유장식
자문위원	곽상옥, 서범석, 채수일
이사	공영란, 구명자, 권영대, 김규두, 김명숙, 김영진, 김영희, 김재명, 김정수, 남영도, 류충권, 류치양, 모용상, 박희주, 배명숙, 원종윤, 이동렬, 이봉준, 장복실, 주복덕, 최형식, 한규철, 한금복, 황선명
운영위원	공형식, 공란식, 김정한, 노해순, 목진옥, 민정근, 박경진, 박지순, 성정은, 손선아, 원유배, 이기택, 이윤진, 이재규, 이정숙, 이창규, 이필영, 장재홍, 장 현, 정지인, 조광준, 최서희, 최창순, 최호영, 한귀동, 한민규, 홍학기
회원	강민정, 공민주, 김선영, 김영민, 김정수, 김태현, 김해룡, 김혁태, 나옥란, 민순애, 박영자, 박정하, 백미옥, 변영일, 서유순, 송경은, 송석일, 신경희, 오봉진, 유호순, 윤영미, 이광세, 이동우, 이명녀, 이보경, 이선자, 이원숙, 이정혜, 이종철, 이태은, 이현영, 장명희, 장영환, 정연모, 정원순, 정희순, 지은정, 진연덕, 최병문, 최순희, 최영미, 최영숙
사무국	사무국장 유종대 행정실장 이주연

오산문화원 부설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남경식
연구위원	강경구, 김용국, 김준혁, 배명숙, 오근택, 유종대, 이종석, 이희석, 임종삼, 정해득, 한민규

회원모집

오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전통문화 계승·보존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오산문화원 회원이 되시면..

- 오산문화 등 각종 간행물 우송
- 문화원 주관행사에 우선 초대
-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 열람

연회비 12만원 (월 1만원) - CMS 자동이체
농협 196-01-011157 (예금주 : 오산문화원)

문의 및 접수

오산문화원 / 447-800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오산동 345)
전화 : 031) 375-7755 팩스 : 031) 375-7959

오산문화 2014년 제57호

- | 발 행 처 | 오산문화원
우편번호 447-800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오산동 345)
전화 : 031)375-7755 / 팩스 : 031)375-7959
- | 발 행 일 | 2014년 6월 30일
- | 발 행 인 | 임명재
- | 편 집 인 | 유종대
- | 편 집 | 오산문화원편집위원회
- | 편집자문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 | 편집관리 | 이주연
- | 제 작 | 우리동네사람들 1577-5433

※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오산문화원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osan culture

2014 VOL.57

오산문화원 4대 지표

01 내 고장 문화를 창조한다. 02 내 고장 문화를 발굴한다.
03 내 고장 문화를 보존한다. 04 내 고장 문화를 홍보한다.

문화예술의사랑방



오산문화원

OSAN CULTURE CENTER

www.oscc.or.kr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오산동 345) Tel. 031-375-7755 Fax. 031-375-7959